

발간등록번호
11-1241000-100113-01



『저작권통계』 품질개선 컨설팅 최종결과보고서

Final Report on Quality Improvement Consulting for
『Copyright Statistics』

한국자료분석학회

2025.11.27.

제 출 문

국가데이터처장 귀하

본 보고서를 「저작권통계」 품질개선 컨설팅의 최종결과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한국자료분석학회

연구진

책임연구원	전세봄, 목원대학교 마케팅빅데이터학과 부교수
연구원	권태연,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금융학과 부교수
연구보조원	노윤하, 목원대학교 마케팅빅데이터학과 연구원

주요 자문위원

김	, 저작권문제연구소
손	, ○○대학교 ○○○○학과 교수
전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최종결과보고서 요약문

연구과제명	「저작권통계」 품질개선 컨설팅
주제어	저작권통계, 공표자료, 저작권특수분류체계, 가공통계, 조사통계
연구기간	2025. 9. 1. - 2025. 11. 28.
연구기관	한국자료분석학회
연구진구성	전새봄, 목원대학교 마케팅빅데이터학과 부교수 권태연,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금융학과 부교수
<p>저작권통계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산업의 경제적 기여도를 산출하기 위해 작성하는 가공통계(승인통계 제443001호)로, 최근 디지털화 가속과 신유형 산업 등장, 산업분류체계 개편 등으로 현행 작성체계 전반의 점검과 품질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작성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가공통계 유지 시 개선방안’과 ‘조사통계 전환 가능성’을 병행 분석해 통계의 신뢰성과 정책 활용성 제고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p> <p>첫째, 현행 체계는 KSIC - KSCIC 간 개정 시차로 인한 불일치, 기초자료 공표 시차, 저작권요소 미갱신, 디지털·플랫폼 산업 반영 부족 등 구조적 한계가 있으며, 비공표 연도 추정 의존으로 산업 변화 반영이 미흡하다.</p> <p>둘째, KSCIC은 웹툰·웹소설 등 일부 개선이 있었으나 OTT·스트리밍·크리에이터 등 신유형 산업 세분화와 가치사슬 기반 다층 분류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p> <p>셋째, 산업 변화의 시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통계등록부·전국사업체조사 등 매년 갱신되는 기초DB 연계 강화와 저작권료·플랫폼DB 등 신규 행정자료 도입, 그리고 분류체계 - 기초자료 - 산출모형 간 정합적 연계 구축이 요구된다.</p> <p>넷째, 매출·부가가치 중심에서 벗어나 노동생산성·성장률·유발계수·플랫폼 매출·저작권료 등 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보조지표 확장이 필요하다.</p> <p>마지막으로, 조사통계 도입을 위해서는 모집단 대상 범위 설정, 표본틀 구축이 선결되어야 하므로, 단기적으로는 가공통계 체계와 핵심 저작권산업 중심의 실태 조사를 우선 도입함으로써 조사 기반 통계체계로의 전환을 본격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 표본틀을 기반으로 조사통계 기반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저작권 산업 변화의 정밀한 반영과 정책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혼합형 통계체계로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p> <p>종합하면 본 연구는 분류체계 정비, 기초자료 연계 고도화, 지표 확장, 혼합형 작성체계 도입 등 단계적 개선전략을 제시하였으며, 가공통계 유지 시에도 기초자료 자동화·연계 강화와 분류체계 정기 갱신을 통해 저작권통계의 대표성·정합성·시의성·정책 활용성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함을 확인하였다.</p>	

요약

저작권통계는 우리나라 저작권산업의 경제적 기여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정부의 문화·콘텐츠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작성하는 승인통계(제443001호)로, 산업연관표·경제총조사·행정자료 등 다양한 기초자료를 가공하여 산출되는 가공통계이다. 최근 디지털 기반 창작활동 확대, 신유형 콘텐츠 등장, 산업분류체계 개편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현행 저작권통계가 실제 시장 규모 및 산업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초자료 시차, 분류체계 변동, 저작권요소 미갱신 등으로 인해 통계의 시의성·정확성·대표성 측면에서 가공통계 품질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저작권통계(2023) 작성방식, 공표자료, 기초자료, 저작권산업특수분류(KSCIC) 등 통계 작성체계 전반을 검토하고, 통계의 신뢰성·활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연구내용은 공표자료 및 통계표 구조 검토, 기초자료 연계 실태 분석, 분류체계 정합성 검토, 저작권요소 조사체계 점검, 전문가 자문(FGI) 등을 통해 현행 작성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또한 저작권산업의 개념·시장규모 산정방식, 해외 지식재산권 기반 산업통계 사례, 유사 가공·조사통계(콘텐츠산업조사 등)를 분석하여 한국 저작권통계에 적용 가능한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는 현행 가공통계 체계를 보완하면서, 소규모 창작기업·프리랜서·플랫폼 기반 창작자 등 기존 가공통계에서 포착되지 않는 모집단을 포함할 수 있도록 조사통계의 단계적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조사통계 기반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단계적·실행가능한 단계적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현행 저작권통계 작성체계와 개선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1> 저작권통계 현행 작성방법과 개선안 요약 비교

구분	현행 작성방법	개선안
작성대상 (모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산업특수분류(KSCIC) 기반 저작권 산업(4개 대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기반 분류 매칭 • 플랫폼 등 신산업 불충분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CIC 정비 및 신산업 세분화 • 플랫폼·디지털 창작자 등 신유형 창작 활동 포함 • 산업 구조 변화 반영한 다층 분류체계 구축
기초자료 의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연관표·경제총조사에 높은 의존도 • 비공표 연도 추정값 활용 불가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통계등록부(매출·고용 등) 기반의 매년 갱신 가능한 기초자료 체계 구축 • 행정자료·민간DB 연계 강화 • 기초자료 자동화·주기적 갱신 • 경제총조사 비공표 년도의 자료 공백 최소화
자료수집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없이 전량 가공통계 방식 • 시차 및 산업 변화 반영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통계 유지 + 기업통계등록부·행정DB 보완자료 연계 • 장기적으로 조사통계 단계적 도입 검토 (혼합형 체계 구축)
저작권요소 (copyright fact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 미갱신 • 최신 창작환경 반영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적 갱신체계 마련 • 산업 구조 및 신유형 창작활동 반영한 요소비중 재산정
지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부가가치 등 규모 중심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생산성·성장률 등 보조지표 도입 • 산업 효과성·성장성 평가 가능
공표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산업 대분류(핵심) 중심 공표 • 산업구조 변화 반영 어려움 • 활용성·가독성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표단위 재구성(대분류 및 중분류) • 기업통계등록부 연계 기반의 연도별 표준화된 시계열 공표체계 구축 • 성장성·효율성 지표 등 공표체계 확장
지속가능성 및 확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차·분류 불일치로 안정성 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CIC 분류체계-기초자료(기업통계 등록부·행정DB)-산출지표 간 정합적 연계체계 구축 • 분류·자료·지표의 일관성을 통해 매년 갱신 가능한 시계열 안정성 확보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저작권통계 품질개선을 위해 기초자료 연계·수집체계 고도화, 저작권산업특수분류(KSCIC)의 정기적 정비 및 신산업 세분화, 노동생산성·성장률·저작권료 기반 지표 등 보조지표 도입, 공표체계 및 항목 재정비, 가공통계 유지 시 자동화·정교화 전략 마련 등을 포함한 단계적 개선전략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조사통계 도입/전환은 소규모 사업체·프리랜서·플랫폼 기반 창작자 등 현행 가공통계에서 누락되는 모집단을 포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며, 표본틀 구축과 조사 비용 등을 고려할 때 표본틀 구축을 기반으로 조사통계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여, 저작권산업 변화의 정밀한 반영과 정책 활용도를 높이는 혼합형 통계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와 표준화된 분류·자료·산출체계 정비를 통해 저작권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시의 적절히 반영하면서 통계의 신뢰성과 시계열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차 례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내용 및 방법	4
제 3 절 연구의 기본 목표와 절차	7
제 2 장 저작권통계 작성현황 검토	9
제 1 절 저작권통계 개요	9
제 2 절 현행 저작권통계 작성범위 및 산출방법 검토	11
제 3 절 공표자료 현황 분석	20
제 4 절 유사통계 작성현황 검토	24
제 5 절 전문가 자문 결과	31
제 6 절 검토내용 종합	34
제 3 장 가공통계 품질개선 고도화 방안	37
제 1 절 가공통계 품질개선의 목적 및 방향	37
제 2 절 분류체계 개선방안	39
제 3 절 기초자료 및 산출절차 개선방안	42
제 4 절 보조지표 및 추가 고도화 방안	44
제 5 절 개선방안 종합 및 단계별 로드맵	54
제 4 장 조사통계 전환 타당성 검토	56
제 1 절 현행 저작권통계에서의 조사	56
제 2 절 조사통계 도입의 필요성과 목표	57

제 3 절 조사통계 도입의 선제조건 - 모집단 정의 및 포함범위	59
제 4 절 조사통계 도입의 선제조건 - 표본틀 구축	62
제 5 절 조사통계 도입의 선제조건 - 조사통계의 한계점 유의	65
제 6 절 조사통계 도입 시나리오	66
제 5 장 결론 및 제언	68
참고문헌	70
부록1 저작권통계(2023) 설명자료	72
부록2 저작권통계 공표자료 시계열(2022-2025)	75
부록3 유사 가공통계 작성현황 상세(7종)	76
부록4 유사 조사통계 작성현황 상세(8종)	83
부록5 저작권산업특수분류체계(2025) - 개정전/후 변경사항	91
부록6 저작권요소(copyright factor) 조사	104

표 차 례

<표 1-1> 2025년 저작권통계 공표항목	2
<표 2-1> 작성범위 및 산출방법 검토 결과 나타난 한계점 요약	19
<표 2-2> 저작권통계(산업분야) 통계표 공표수준	20
<표 2-3> 유사통계 및 작성기관	24
<표 2-4> 유사통계(가공통계) 작성현황 비교	28
<표 2-5> 유사통계(조사통계) 작성현황 비교	29
<표 2-6> 전문가 자문회의 검토 결과 요약	33
<표 2-7> 전문가 검토 단계별 개선(안)	33
<표 3-1> 한국 저작권 통계에 근거한 과생보조지표 산출 예시	49
<표 3-2>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중분류) 산업 매칭	53
<표 3-3> 유발계수 산출 결과	53
<표 3-4> 가공통계 품질개선 고도화 방안 단계별 로드맵	55
<표 4-1> 저작권통계 작성대상(모집단)	60

그림 차례

<그림 2-1> 저작권산업 대분류	12
<그림 2-2> 산업(전체/핵심)별 매출액(명목) 추이	21
<그림 2-3> 전체 산업 대비 저작권산업(전체/핵심) GDP 비중 추이	22
<그림 2-4> 전체 산업 대비 저작권산업(전체/핵심) GDP 비중 순위 추이 ..	22
<그림 3-1> 한국은행 지식서비스 무역통계 산업유형 구분	51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저작권통계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13년부터 발간해온 ‘한국저작권산업의 경제기여도 조사 보고서’와 저작권통계를 기반으로 하여, 2017년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443001호)로 지정된 통계이다. 이는 한국 저작권산업의 매출액, 부가가치, 고용 규모 등을 산출하여 산업의 경제적 기여도를 파악하기 위한 국가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저작권통계는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저작권 기반 산업의 경제기여도 조사 가이드」를 근거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와 저작권산업특수분류(KSCIC)를 연계하여 가공통계 방식으로 산출되고 있다.

저작권통계는 <표 1-1>에서 볼 수 있듯이, 창작·제작유통·보호·산업·기타 등 5개 분야에 걸쳐 총 88개 통계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작성 목적과 통계의 유래를 고려할 때, 이들 항목 중에서도 한국저작권산업의 경제기여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산업 분야가 핵심적 의미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체 통계항목을 포괄적으로 다루기보다, 경제기여도 산출과 직결되는 저작권통계의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통계품질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하 본문에서 ‘저작권통계’라 함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저작권통계의 산업 분야를 지칭하는 것으로 통칭한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 대상인 저작권통계(즉, 저작권통계 산업분야 통계 항목)는 저작권산업에 속하는 각 산업의 창작·제작·유통·보호 활동을 기반으로 산출되는 경제적 기여도(매출액, 부가가치, 고용 규모 등)를 중심으로 한다. 주요 작성 내용에는 산업별·세부 산업별 매출액과 부가가치, 고용자 수, GDP 대비 비중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저작권산업 전체 및 핵심·상호의존·부분저작권산업의 경제적 기여 규모가 산정되고 있다.

저작권통계는 ‘저작권 통계’ 통계집과 ‘한국 저작권산업의 경제기여도 조사보고서’를 통해 매년 작성 및 공표되며,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및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공표되고 있다. 공표 지표는 산업·세부산업별 매출액, 부가가치, 고용자수, 산업별 저작권 비중 등이 포함되며, 국가데이터처 승인통계 관리체계에 따라 통계설명자료가 정기적으로 작성·갱신되고 있다.

<표 1-1> 2025년 저작권통계 공표항목

분야(5개)	통계항목(88종)	원자료 작성기관 및 출처
창작 (10)	저작권 등록 저작(인접)물 창작 인력 배출 공연프로그램 건축물 미술작품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조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공미술포털
제작·유통 (23)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 운영 신탁관리단체 운영 저작권 징수 및 분배 저작재산 수수료 대리중개업	한국저작권위원회 신탁단체 및 보상금수령단체 문화체육관광부 위탁관리시스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자권국 저작권산업과
보호 (34)	불법복제 현황 국내저작권보호(불법저작물 단속,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사법처리, 시정권고) 해외저작권보호 저작권 교육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 BSA BSA Global Software Survey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과 저작권보호과 한국저작권보호원 대검찰청 범죄분석 한국저작권위원회
산업 (8)	전체 저작권 산업 규모 핵심 저작권 산업 규모 저작권 산업의 경제적 기여도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기타 (13)	공무·창조 자원 법정허울, 조정, 감정 저작권 인증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현행 저작권통계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기반의 산업별 매출·부가가치·고용을 산출한 후, 저작권산업특수분류(KSCIC) 체계에 따라 핵심저작권산업·상호의존저작권산업·부분저작권산업 등으로 재분류하는 방식으로 작성된다.

그러나 KSCIC-KSIC 간 분류 매치의 불완전성, 부분저작권산업의 저작권요소 (copyright factor) 적용 방식, 스트리밍·플랫폼 기반 창작 등 신산업의 반영 한계 등으로 인해 산출결과의 정확성과 대표성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또한 산업연관표·국민계정·행정자료 등 기초자료는 공표 시차가 존재하며, 일부 기초자료는 적시에 공표되지 않는 등의 제약으로 가공통계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 경제총조사가 5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비공표 연도에는 보조 추계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 또한 통계의 시의성과 일관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제약은 특히 디지털 기반 창작활동, 1인 창작자, 플랫폼 노동자 등 신규 창작 주체의 경제 활동이 확장되는 최근 산업 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데 한계를 초래하고 있다.

전문가 검토 결과에서도 저작권통계의 작성체계는 기초자료 시차·분류체계 특수성·저작권요소 적용 방식의 불명확성·신산업 반영 한계 등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통계 기반의 자료 수집체계 도입 또는 전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저작권통계의 현행 작성체계와 기초자료 의존구조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가공통계 방식의 한계 및 개선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산업 구조 변화와 국제기준(WIPO)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KSCIC-KSIC 연계 및 분류체계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셋째, 기업통계등록부·행정자료 등 신규 데이터 기반을 활용하여, 산업 규모 산출의 정확성·대표성·시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넷째, 현행 가공통계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산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조사통계 기반의 체계 구축을 위한 단계적 접근전략을 함께 도출함으로써 향후 지속가능한 저작권통계 생산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저작권통계의 작성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가공통계 방식의 정합성·일관성·시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 품질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① 가공통계 품질개선 고도화, ② 조사통계 전환 타당성 검토라는 두 가지 핵심 과업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두 축을 통해 현행 가공통계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중장기적으로 조사통계를 활용한 안정적·지속가능한 저작권통계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단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공통계 체계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무엇을, 어떤 기준과 자료를 활용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산출할 것인가”에 대한 일련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이는 분류체계와 지표 간 연계 구조, 기초자료의 공표주기 및 시차, 산출 방식의 논리적 구조, 통계 활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저작권산업은 디지털 기반 산업 구조 변화 속도가 빠르고, 비공표 연도 자료 활용에 제약이 크기 때문에, 현실적 작성 여건과 자료 환경을 반영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다.

현행 저작권통계는 산업연관표·국민계정·행정통계 등 기초자료를 가공하여 산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KSIC-KSCIC 연계 문제, 저작권요소(copyright factor)의 미갱신, 비공표 연도 보정 방식의 불확실성, 플랫폼 기반 창작 신산업 반영의 어려움, 그리고 공표 지표의 정책 활용성 한계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내·외 유사통계 사례 검토 결과, 현행 가공통계 방식의 시계열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매년 갱신되는 행정자료 기반 기업통계등록부(Business Register, BR) 등 신규 기초자료 활용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주요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1. 가공통계 품질개선 고도화 방안 마련

본 과업에서는 저작권통계의 작성체계 전반을 검토하고, 가공통계 중심 방식에서 발생하는 품질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KSIC-KSCIC 분류체계의 연계 구조, 산업연관표·국민계정·행정통계 등 기초자료의 적정성과 활용 방식, 산출결과의 시의성·정합성·대표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아래 네 가지 세부 과제를 중심으로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① 작성범위 및 분류체계(KSCIC) 적정성 검토
- ② 기초자료 활용 및 자료 연계 고도화
- ③ 가공통계 산출 로직 및 자료처리 기준 정비
- ④ 국내외 유사 산업통계 및 해외 IP 산업통계 비교 분석

이를 통해 가공통계 방식에서 나타나는 시차·자료공백·분류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매년 안정적으로 갱신 가능한 통계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조사통계 전환 타당성 검토

두 번째 과업은 장기적으로 저작권통계를 조사통계 기반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평가하고, 그 필요성과 실현조건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가공통계 방식이 갖는 구조적 제약을 보완하고, 산업 구조 변화 속도를 반영한 정교한 통계작성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다.

세부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저작권산업 모집단 정의 및 조사대상 포함범위 검토
- ② 조사통계 도입의 실현가능성 및 단계적 접근 전략
- ③ 정책적·실행적 효과성 분석

이를 통해 저작권산업의 특성과 시장 구조 변화가 반영된 조사통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체계적 전환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두 과업의 단계적인 세부 내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병행한다.

□ 문헌연구 및 실증 자료분석

저작권통계 통계설명자료, 경제기여도 조사보고서, KSCIC 분류체계, 산업연관표·국민계정 등 기초통계, 국내 콘텐츠산업통계 및 해외 IP 산업통계 등 관련 문헌과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저작권요소 산출, KSIC-KSCIC 연계 구조, 산업 규모 산출 로직 등 작성 과정의 정합성을 점검하기 위한 실증자료 분석을 병행하였으며, 기업통계등록부 등 신규 행정자료의 활용 가능성과 데이터 속성(세분성·결합 가능성 등)도 함께 평가하였다.

□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자문회의 개최

저작권통계 작성기관(한국저작권위원회), 국가데이터처, 콘텐츠산업·저작권산업분류체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현행 작성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을 심층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가공통계 고도화 및 조사통계 전환의 실무적 타당성을 점검하고, 작성기관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한 개선 방향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상기 절차를 통해 저작권통계의 품질 향상과 통계작성체계의 지속가능성·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저작권산업 정책 수립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통계 기반 강화를 목표로 한다.

제 3 절 연구의 기본 목표와 절차

본 연구는 저작권통계 작성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진단을 바탕으로, 통계의 정합성·일관성·시의성·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가공통계 중심 방식에서 나타나는 기초자료 시차, 분류체계 불일치, 저작권요소 미갱신, 신산업(OTT·플랫폼 등) 반영 미흡 등 주요 문제를 보완하고, 장기적으로 조사통계 기반의 자료수집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단계적 전환 전략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표는 다음 네 가지이다.

(1) 현행 작성체계 및 분류체계(KSCIC)의 정합성 검토

저작권통계의 작성범위, KSIC-KSCIC 연계 구조, 저작권요소 적용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산업 구조 변화와 분류 불일치 문제를 분석하여 가공통계 고도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도출한다.

(2) 기초자료 및 산출체계 고도화 방안 검토

산업연관표·국민계정·행정통계 등 기초자료의 구조와 시차를 검토하고, 비공표 연도 보정 방식, 자료처리 기준, 데이터 연계 가능성을 분석하여 안정적 산출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한다. 또한 기업통계등록부 등 신규 행정자료 활용을 통한 대안적 작성방안도 함께 제시한다.

(3) 국내외 유사통계 및 해외 IP 산업통계 비교 분석

국내 콘텐츠산업통계, 지식재산권 기반 산업통계, 해외 WIPO·EU·미국 BEA 작성체계 등을 비교하여 차이점과 벤치마킹 요소를 도출하고, 분류체계 재정비·저작권요소 갱신·보조지표 도입 등 저작권통계 개선방향에 반영한다.

(4) 조사통계 전환 타당성 및 단계적 전환전략 제시

저작권산업 모집단 정의, 조사대상 포함범위, 창작자·사업체 기반 조사 가능성을 검토하고, 행정자료 기반 모집단 구축 등 조사통계 도입/전환에 필요한 선제조건을 분석하여 단계적 전략을 제시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수행되었다.

(1) 현행 작성체계 및 분류체계(KSCIC) 검토

작성범위·분류체계·저작권요소 적용 방식 등을 점검하고, 산업 구조 변화와 분류 불일치 문제를 분석하였다.

(2) 기초자료 및 산출체계 분석

산업연관표·국민계정·행정통계 등 주요 기초자료의 구조·시차를 검토하고, 비공표 연도 보정 방식 및 산출 로직의 정합성을 분석하였다.

(3) 유사 통계 및 해외 IP 산업통계 비교 분석

국내·외 유사통계의 작성체계와 지표 구조를 비교하여 차이점 및 개선 요소를 도출하였다.

(4) 조사통계 전환 타당성 및 조건 검토

저작권산업 모집단 정의, 조사대상 범위, 조사설계 요건, 행정자료 기반 표본틀 구축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단계적 전환전략을 마련하였다.

제 2 장 저작권통계 작성현황 검토

제 1 절 저작권통계 개요 **부록1**

□ 통계명 및 기본정보

- 통계명: 저작권통계(승인번호: 제443001호)
- 작성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법적근거: 통계법 제18조(국가승인통계), 저작권위원회 관련 법령
- 작성 및 공표주기: 매년 작성·공표(가공통계 방식)

□ 작성목적 및 작성대상

○ 작성목적

저작권통계는 국내 저작권산업의 규모와 경제적 기여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저작권 정책수립·산업지원·콘텐츠산업 육성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저작권산업의 매출·부가가치·고용 등 경제적 규모 산출
- 산업 구조·특성·성장성에 대한 진단
- 창작·제작·유통·보호 관련 정책수립과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 작성대상(저작권통계 산출대상 산업범위)

저작권 보호에 기반하여 영위되는 산업 또는 저작권이 그 산업의 수립에 중요한 역할¹⁾을 하는 산업. 즉 저작물의 창작과 활용, 그리고 이 활동을 뒷받침하는 경제적 활동을 영위하는 산업의 경제 규모

1) 저작권과 관련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생산과 유통, 이용 등 전반적인 경제 활동을 통한 상업적 가치 창출을 의미

- KSIC(한국표준산업분류) 기반 산업 중 저작권과 직간접적 경제적 연관성을 갖는 산업
- KSCIC(한국저작권산업특수분류)에 따라 핵심저작권산업 · 상호의존저작권산업 · 부분저작권산업 · 저작권지원산업으로 재분류
- 플랫폼 기반 디지털콘텐츠, 웹툰 · 게임 · 음악 · 방송 · 출판 · 소프트웨어 등 창작 · 제작 · 유통 · 보호 활동과 관련된 산업 전반 포함
- 부분저작권산업의 경우 저작권요소(copyright factor)를 적용하여 저작권 관련 기여도만 산출

□ 작성방법

○ 기초자료

저작권통계는 다음 기초자료를 활용한 전량 가공통계 방식으로 작성된다.

- 산업연관표(생산 · 부가가치 구조, 중간투입 구조)
- 국민계정(산업계정 및 소득계정)
- 경제총조사 · 사업체조사 기반 매출 · 고용 자료
- 국제수지(IP Royalties 등)
- 저작권 행정통계(등록, 보호, 신탁 · 보상금 등)

○ 작성방법(산출방식)

- KSIC → KSCIC 연계 기반으로 산업 재분류
- 산업군별 매출 · 부가가치 · 고용 기반 규모 산출
- 부분저작권산업에는 저작권요소(copyright factor) 적용
-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직접효과 · 간접효과 포함한 경제기여도 추정
- 비공표 연도는 추정치 또는 보정치로 대체

제 2 절 현행 저작권통계 작성범위 및 산출방법 검토

1. 현행 작성범위 검토

저작권통계는 저작물의 창작·제작·유통·보호·활용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활동을 포괄하는 산업을 대상으로 하며, 저작권 보호를 기반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전반을 작성범위로 규정한다. 다시 말해, 저작권 기반 재화·서비스의 생산과 유통·이용을 통해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는 산업 전체가 통계 산출 대상이 된다.

(1) 저작권산업 분류체계(KSCIC)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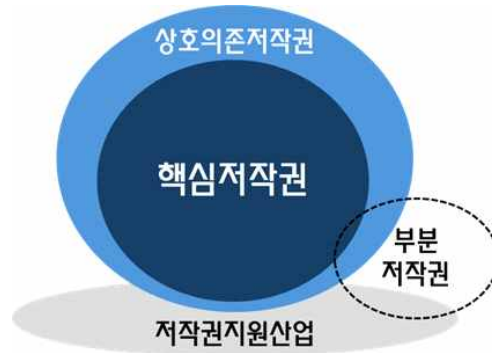
현행 저작권통계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기초로 하여, 이를 한국저작권산업특수분류²⁾(KSCIC) 체계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KSCIC은 WIPO(2003)의 국제저작권산업분류를 준용하여 국내 산업구조에 맞게 수정·보완한 국가 공식 분류체계(2011년 제정)로, 저작권산업을 다음 네 개 분야로 구분한다.

- 핵심저작권산업: 저작물의 창작·제작·유통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산업
- 상호의존저작권산업: 저작물 제작·유통을 지원하는 장비·서비스 산업
- 부분저작권산업: 산업 일부가 저작권 관련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산업
- 저작권지원산업: 저작권 이용·유통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산업

현재 통계 산출은 KSIC 세세분류³⁾ ↔ KSCIC 산업분류 연계표로 매핑하는 절차를 통해 수행되며, KSCIC은 작성범위를 규정하는 기준 분류체계의 역할을 수행한다.

2) WIPO의 조사가이드를 근거로 저작권산업 특수분류체계 작성 및 제정, 국가 공식 분류 승인(2011)

3) 미국은 WIPO의 ISIC 분류 기준에 맞춰 미국저작권산업분류 NAICS를 적용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역시 싱가포르 고유의 표준산업분류 SSIC에 따른 분류원칙 체계를 채택하고 있음



포괄 영역	정의
핵심 저작권산업	작품 및 기타 보호대상물의 창작, 생산, 제조, 공연, 방송, 통신 및 전시, 혹은 유통 및 판매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산업
상호의존 저작권산업	그 기능이 전적으로 혹은 주로 작품 및 기타 보호대상물의 창조생산 및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기의 생산, 제조 및 판매에 종사하는 산업
부분 저작권산업	일부의 활동이 작품 및 기타 보호대상물과 관련되어 있는 산업으로서 작품 및 기타 보호대상물의 창조, 생산, 제조, 공연, 방송, 통신, 전시 혹은 유통 및 판매에 관여하는 산업
저작권 지원산업	활동의 일부분이 작품 및 기타 보호대상물의 방송, 통신, 판매 및 유통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그 활동이 핵심 저작권산업에 포함되지 않는 산업

자료: WIPO (2003; 2015); 문화체육관광부(2012), 대분류 기준

<그림 2-1> 저작권산업 대분류

(2) 작성범위에 활용되는 주요 기초자료

현행 저작권통계 산출에 활용되는 기본 자료는 다음과 같다.

- 매출·종사자수: 경제총조사(5년 주기), 광업·제조업조사, 서비스업조사, 도소매업조사, ICT통계 등
- 부가가치: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의 부가가치율을 매출자료에 적용
- 경제규모 보조자료: 국민계정(산업별 부가가치 수준·구조 확인)

경제총조사 공표 공백기(미공표 연도)에는 산업별 개별조사 자료가 보완자료로 활용되며, KSIC-KSCIC 연계표를 통해 산업 분류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 저작권 등록·신탁·보상금 등 행정자료는 산업 규모 산출에는 직접 포함되지 않으며, 공표항목 구성 또는 정책지표 참고 자료로만 활용된다.

(3) 작성기간·자료수집 및 공표 절차

- 작성대상기간 및 기준시점: 전년도(2022년) 1월 1일~12월 31일
- 자료수집시점: 2월~11월
- 공표시점: 익년도(2023년) 11월

자료 수집-분류-검증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공공통계 원자료 확보(국가데이터처·한국은행 등)
- ② KSIC-KSCIC 연계표를 활용한 산업분류 매핑(저작권산업 분류체계로 변경)
- ③ 경제총조사 공백기 보완(산업별 조사 기반 추정치 활용)
- ④ 매출-부가가치-고용 산출 및 자료 검증(매출액 → 부가가치율 적용 → 부가가치·고용 추정 → GDP와 교차검증)
- ⑤ 결과 공표(문체부·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공식 발표, 매년 11월)

2. 산출방법 체계

저작권통계의 산출은 KSIC 기반 산업자료 확보에서 시작하여, KSCIC 재분류, 저작권요소 적용(해당 산업군), 산업규모 산출, 경제기여도 산출, 비공표 연도 보정 순으로 이루어진다. 전체 절차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① KSIC 기반 산업자료 확보

산출의 1단계는 KSIC 분류를 기준으로 공공통계를 확보·정비하는 것이다. 사용되는 핵심 자료는 아래와 같다.

- 산업연관표: 산업별 생산·중간투입·부가가치 구조
- 국민계정 산업계정: 산업별 부가가치 규모 확인
- 경제총조사 및 산업별 조사: 매출액·사업체 수·종사자수

- 보조자료: 산업 구조 확인을 위한 K SIC 세분류 데이터 등

※ 사업체조사는 종사자수·업종 구조 확인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매출 자료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산업 규모 산출의 직접적 기초자료는 아님.

② K SIC 재분류 매핑

확보된 K SIC 자료는 K SIC 연계표를 활용하여 4대 저작권산업군으로 재분류된다. 이 과정에서 K SIC-K SIC 간 누락·중복 여부, 신산업(웹툰·플랫폼·콘텐츠 관련 융복합 업종)의 분류 적합성, 분류 경계가 불명확한 업종의 보정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보정한다.

③ 저작권요소 적용(부분저작권산업)

부분저작권산업의 경우, 저작권 관련 경제활동 비중만 반영하기 위해 저작권요소(copyright factor)를 적용한다. 현재 적용되는 저작권요소는 2008년 산출값이 유지되고 있다. 저작권요소는 매출·부가가치·고용에 동일한 비율로 적용된다.

④ 산업 규모 산출

재분류된 산업군별로 다음 지표를 산출한다.

- 매출액: 경제총조사 및 개별 산업조사를 기반으로 산출
 - 부가가치: 산업연관표 부가가치율을 매출액에 적용
 - 고용 규모: 경제총조사 및 산업별 조사 기반 종사자수 활용
- 산출된 산업규모는 K SIC 4대 산업군별 통계표로 정리된다.

⑤ 경제기여도 추정(산업연관표 기반)

경제기여도는 산업연관표 기반이며, 직접효과 중심으로 산출된다.

⑥ 비공표 연도 산출

기초자료의 공표 간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비공표 연도는 다음 방식으로 산출한다. 시계열 보간(interpolation), 외삽(extrapolation), 산업별 성장률 적용, 보정계수 활용 등을 통해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시계열 자료를 유지한다.

3. 자료수집 및 산출방법의 주요 문제점

(1) KSIC-KSCIC 연계체계의 구조적 제약

저작권통계는 KSIC 자료를 KSCIC 산업군으로 매핑하는 절차를 통해 산출되는데, 두 분류체계 간 구조적 차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존재한다.

- 분류 간 불일치 문제

KSIC은 일반 산업분류체계로서 저작권 기반 활동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KSCIC은 이를 보정하기 위한 특수분류체계지만 KSIC 대비 지나치게 광의·협의의 범주가 얽혀 있어 누락·중복 매핑이 발생한다.

- 신산업 및 융복합 산업 반영의 어려움

온라인 및 AI 기반 창작 등 일부 신산업은 KSIC 내에 적절한 코드가 없어 매핑 시 제한이 존재한다. 다만 웹툰·웹소설은 KSCIC 2025 개정에서 별도 세분류가 신설되어 KSCIC 측 분류 적합성은 개선되었다.

- 분류 개정 주기와 산업 변화 속도의 불일치

KSIC·KSCIC 모두 개정 주기가 길어 디지털 전환·창작 플랫폼 확산·글로벌 스트리밍 활성화 등 최근 산업구조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2) 기초자료의 공표주기·구조 차이에 따른 시계열 불안정성

저작권통계 산출에 활용되는 기초자료는 공표주기와 작성방식이 상이하어 연도 간 일관성 확보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 경제총조사(5년)-산업별조사(매년) 간 구조 차이로 인해
 - 공표 연도와 비공표 연도 간 자료의 수준(level) 차이,
 - 분류 세분의 차이로 인한 시계열 불연속성(discontinuity)이 발생한다.
- 비공표 년도의 추정치 의존 문제
 - 경제총조사 공표년도에는 전수조사 자료를 사용하나 비공표 연도에는 산업별 조사 기반 추정치를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연도별 변동이 실제 산업 변화를 반영한 것인지 자료구조 차이에 기인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 자료 수집의 시차 발생
 - 예를 들어 2022년 기준 통계가 2024년 11월에 공표되는 구조로 인해 정책 수립·산업 진단 시 실제 산업 상황과 약 2년의 시차가 발생한다.
- 일부 서비스업·디지털콘텐츠 업종의 통계 부재
 - 특정 플랫폼·창작기업군은 공식통계에서 포착되지 않아 세분화된 산업 및 업종 단위 시계열 분석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3) 산업연관표(부가가치율)의 시차 및 적용상 한계

부가가치 산출은 산업연관표의 부가가치율(VA ratio)을 매출자료에 적용하는 방식이나, 산업연관표 특성상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 산업연관표는 3~5년 주기로 작성되므로 최신 데이터가 즉시 반영되지 못하고, 구조 변화가 빠른 산업에서 과거 부가가치율을 적용할 경우 현실과 괴리가 발생한다.

- 산업연관표의 투입·산출 구조 변화는 특히 콘텐츠·플랫폼 산업의 빠른 구조 변화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워 부가가치 수준이 과대·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 산업연관표는 평균 산업구조를 반영하므로 기업 규모별·세부업종별 생산성 차이, 특히 창작·플랫폼 기반 무형가치(저작권료, 스트리밍 매출, 글로벌 수익 구조 등)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4) 저작권요소(Copyright Factor)의 장기 미갱신 문제

부분저작권산업의 저작권 부분의 경제기여도 산출에 사용되는 저작권요소는 2008년 최초 산출 이후 갱신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산업구조·저작권 의존도 변화가 매우 큰 산업군(광고, 디자인, 팬덤 기반 콘텐츠, SNS 크리에이터 등)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특히 디지털 전환 이후 저작권 기반 활용도가 크게 변한 산업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비율이 적용되어 지표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신유형 저작권 산업(웹툰 IP 글로벌 유통, AI 기반 창작물 등)의 기여도는 기존 요소로 측정 불가하다는 한계가 있

다. 2025 KSCIC 개정으로 웹툰·웹소설이 세분화되며 산업 단위 정보는 일부 개선되었다. 다만 저작권요소 비중은 여전히 갱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5) 데이터 부재 연도에 대한 추정(보정) 방식의 불안정성

비공표 연도는 성장률 적용·추정치 보정 등을 통해 산출되는데, 이와 같은 방식은 원자료 부재 상황에서 불가피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갖는다.

- 성장률·변화율의 출처 및 신뢰도 한계: 산업별 조사 성장률과 KSIC 세세분류 증감률은 통계 목적이 달라 직접 비교가 어려우며, 이를 기반으로 한 추정치는 불확실성을 내재한다.

- 구조 변화 반영의 한계: 보정 방식은 수치 보정에 초점을 두고 있어, 새로운 산업의 등장, 산업 간 관계 재편 등 구조적 변화는 반영하기 어렵다.

- 산업 연도별 급변 현상을 포착하지 못함: 플랫폼 기반 매출 급증, 팬덤 기반 소비 증가 등 특정 산업의 단기 변화가 추정 방식에서 묻혀버리는 문제가 있다.

(6) 신산업·플랫폼 산업의 반영 부족

저작권산업의 성장 동력은 웹툰·OTT·크리에이터·AI·스트리밍 기반 플랫폼 산업이 중심이지만, 현행 KSIC·KSCIC 체계 및 기초자료는 이를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다.

- 신규 업종 코드 부재로 가상 IP 산업 등은 기존 업종에 귀속되어 규모

파악이 어렵다. 웹툰·웹소설의 경우, 2025년 개정 KSCIC에서 독립 세분류가 도입되어 기존 출판업으로의 강제 귀속 문제가 해소되었다.

- 플랫폼 기반 매출이 해외(글로벌)로 집계되는 문제: 구글·애플·아마존 등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매출이 현행 기초자료로는 충분히 포착되지 않아 저작권산업 규모가 과소추정된다.

- 디지털 창작·스트리밍 IP 서비스 등 신유형 콘텐츠의 파악 어려움 → NFT 아트, 온라인 팬덤 플랫폼, 창작 SNS 등은 KSIC 분류 미흡으로 인해 산업 단위 측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저작권통계가 산업의 핵심 변화(디지털 전환·글로벌 확장)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표 2-1> 작성범위 및 산출방법 검토 결과 나타난 한계점 요약

문제유형	핵심 내용
KSIC-KSCIC 구조 한계	분류 불일치, 신산업 부적합, 개정 지연
기초자료 공표주기 차이	경제총조사(5년)와 산업조사(매년) 차이 → 시계열 단절
산업연관표 시차	3~5년 시차·과거 VA율 적용으로 현실 반영 한계
저작권요소 미갱신	2008년 기준 유지 → 디지털 산업 변화 반영 불가
비공표 연도 추정 불안정	성장률 기반 추정의 한계·단기 급변 포착 어려움
신산업 반영 부족	플랫폼·글로벌·AI·메타버스 기반 산업 포착 불가
통계관리체계 한계	원자료 접근 제약·산출 절차 표준화 미흡

제 3 절 공표자료 현황 분석 부록2

1. 저작권통계 공표자료 현황

저작권통계(산업분야)는 총 4개 대분류(핵심저작권·상호의존저작권·부분저작권·저작권지원산업)에 대한 매출액, 부가가치, 고용지표가 공표되었다. 공표 기간은 2010~2022년(13개년 시계열)로 구성되어 있으며, 핵심저작권산업에 한해 9개 중분류 수준의 세부 지표가 제공된다.

전체 공표자료의 구성은 <표 2-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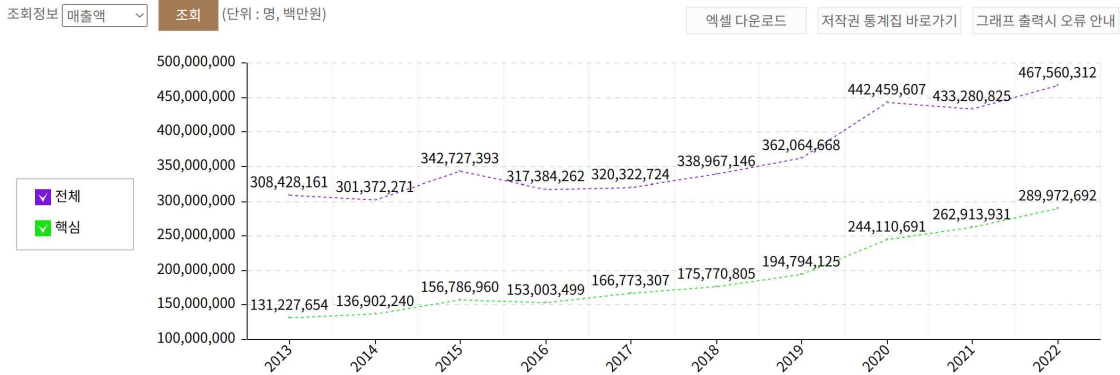
<표 2-2> 저작권통계(산업분야) 통계표 공표수준

포함대상	항목	기간	분류
전체저작권 산업	매출액(명목/실질) 부가가치(명목/실질) 고용자수	2010~ 2022	4개 대분류 산업별 - 핵심/상호의존/부분/저작권지원산업
핵심저작권 산업	매출액(명목/실질) 부가가치(명목/실질) 고용자수		9개 중분류 산업별 - 출판 및 문학/음악,연극 및 오페라/.../저작권협회
전체저작권 산업	GDP비중(명목/실질)		4개 대분류 산업 중 - 핵심/전체저작권산업
전체저작권 산업	고용비중		4개 대분류 산업별 - 핵심/상호의존/부분/저작권지원산업

2. 산업분야 공표지표 현황

(1) 산업 대분류별 공표 현황

저작권산업은 크게 4개 대분류(핵심저작권, 상호의존저작권, 부분저작권, 저작권지원) 산업으로 분류하여 매출액, 부가가치, 고용자수에 대해 공표하고 있다.



<그림 2-2> 산업(전체/핵심)별 매출액(명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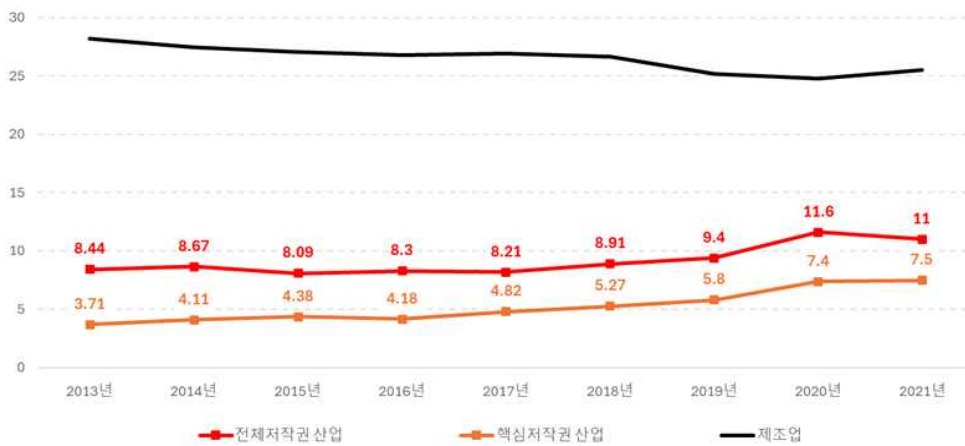
저작권산업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전체 저작권산업은 2013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인다. 주요 관심인 전체 저작권산업 규모와 핵심저작권산업 규모(매출액, 부가가치)에 대한 통계가 시계열 안정성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핵심저작권산업의 비중이 약 60%로 가장 높으며(최근 3년 55%→60%→62%로 비중이 지속 증가), 매출·부가가치·고용 모두에서 지속 확대 추세가 확인된다. 즉 핵심저작권산업이 저작권경제 성장의 중심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핵심산업 중분류별 공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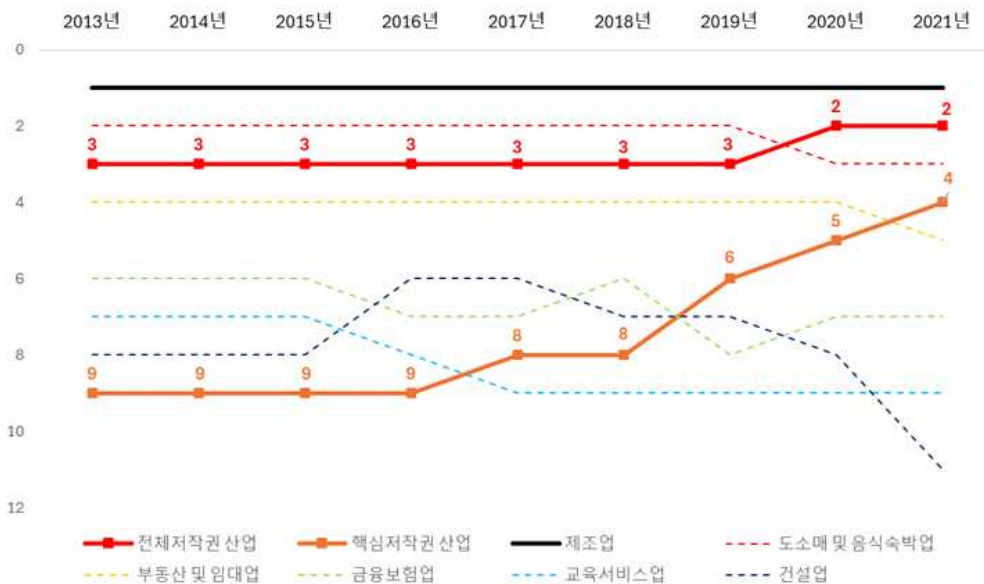
핵심저작권산업은 9개 중분류에 대해 세부적으로 공표되며, 이는 저작권 기반 산업 중 가장 핵심적인 창작·제작·유통 활동을 반영한다. 산업 내 구성의 변화 속에서,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비중이 꾸준히 상승(49%→52%→54%)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산업 경제규모가 압도적 1순위로 모든 지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출판·문학, 라디오·TV 등 전통 산업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증가 또는 정체 양상을 보인다. 고용에서는 음악·연극·오페라 등 공연예술 분야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기록하였으며, 출판 및 문학, 광고서비스 등은 매출 대비 고용 비중이 높아 노동집약적 특성을 시사한다.

(3) GDP 및 고용 비중 공표 현황

전체 저작권산업 및 핵심저작권산업의 GDP 내 비중은 매년 공표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확인된다. 2013~2022년 동안 전체 저작권산업의 GDP 비중은 약 11% 수준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GDP 비중 순위도 전체 산업 중 2위(전체 저작권), 4위(핵심 저작권)로 유지되어 저작권산업이 국내 경제의 주요 성장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그림 2-3> 전체 산업 대비 저작권산업(전체/핵심) GDP 비중 추이(2013-2021년)



<그림 2-4> 전체 산업 대비 저작권산업(전체/핵심) GDP비중 순위 추이(2013-2021년)

3. 공표자료 시계열의 안정성 평가

저작권통계 공표자료의 시계열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산업분야 지표 전반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매출액·부가가치·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는 대분류(핵심·상호의존·부분·지원)와 핵심저작권 중분류 수준 모두에서 연도 간 변동폭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나타나며, 산업구조 변화의 흐름과 일치하는 방향성을 보인다. 특히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비중 확대, 전통적 창작·유통 산업의 완만한 증가 또는 정체 등 산업별 변화 패턴이 시계열 자료에 명확히 반영되어 있어, 저작권산업 내부의 구조적 특성 및 추세 분석이 용이하다.

또한 전체 저작권산업과 핵심저작권산업의 규모 비교에서도 시계열적 안정성이 확인된다. 핵심저작권산업의 매출·부가가치·고용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디지털 창작 기반 산업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산업적 흐름과 일관된 결과로 해석된다. GDP 비중 및 산업 내 순위 변화 또한 큰 불규칙성 없이 점진적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장기적 추세 분석 및 산업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자료로서의 활용도가 높다.

다만 공표 항목의 구성 측면에서는 일부 한계도 존재한다. 핵심저작권산업에 한해서만 중분류 세부 자료가 제공되고, 상호의존·부분·지원 산업은 대분류 수준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산업 간 세부 비교·분석에는 제약이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공되는 시계열 자체의 연속성과 지표 간 일관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산업구조 변화의 큰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는 충분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행 저작권통계는 가공통계로서 시계열 안정성과 지표 간 비교가능성 측면에서 그 장점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제 4 절 유사통계 작성현황 검토

부록3

부록4

1. 유사통계 개요

저작권통계는 다양한 산업·정책 분야에서 생산되는 통계들과 작성 목적·대상·산출방식 측면에서 유사성을 공유한다. 기술무역통계, ICT 수출입통계, 산업연관표, 국민계정, 국제수지통계 등은 저작권통계와 유사하게 여러 행정 자료를 결합·가공하여 산업별 매출, 부가가치, 교역 규모 등 거시적 결과값을 산출하는 통계들이다. 특히 산업연관표처럼 산업별 산출 구조와 경제 규모를 보여주는 결과값에 의존하는 특성이 있어, 작성 방식과 활용 목적에서 저작권통계와 일정한 공통점을 가진다. 또한 콘텐츠산업조사·광고산업조사·예술인실태조사·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실태조사 등은 저작권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산업군을 대상으로 조사통계 방식을 활용한다.

이들 유사통계는 모집단 정의 방식, 표본 추출체계, 기초자료 활용 방식, 공표체계 등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며, 저작권통계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데 유용한 비교 대상이 된다.

<표 2-3> 유사통계 및 작성기관

가공통계		조사통계	
승인통계명	작성기관	승인통계명	작성기관
기술무역통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콘텐츠산업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통신기술산업(ICT)통계		광고산업조사	
ICT수출입통계		예술인실태조사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신문·잡지산업실태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
국민계정		디자인산업통계	산업통상부
국제수지통계		스마트미디어산업실태조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산업통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산업 실태조사	
		방송산업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주요 유사통계 작성현황 비교검토

저작권통계의 유사통계 주요 작성현황은 아래 <표 2-4>, <표 2-5>와 같다.

(1) 행정·가공통계 기반 유사통계

저작권통계와 유사한 구조를 갖는 가공통계 중 산업·특수산업분류체계 및 국민계정·국제수지와 연계되는 7개 통계(기술무역통계, 정보통신기술산업통계, ICT수출입통계, 산업연관표, 국민계정, 국제수지통계, 문화체육관광산업통계)에 대해 검토한다. 이들 통계는 공통적으로 행정자료와 기존 국가통계를 결합하여 작성된다는 점에서 저작권통계와 유사한 작성체계를 가진다.

우선, 기술무역통계·ICT수출입통계·국제수지통계 등은 한국은행·관세청 전산망에 축적된 행정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량 가공하여 통계를 생산한다. 자료 수집에 관한 법적 근거(과학기술기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통계법 등)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부담 없이도 시의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한편, 정보통신기술산업통계, 산업연관표, 국민계정, 문화체육관광산업통계 등은 KSIC 및 특수산업분류를 활용해 기존 조사통계를 재가공하는 형태로 작성된다. 광업·제조업조사, 서비스업조사, 전국사업체조사, 기업통계등록부, 4대보험 DB, 통관자료 등 다양한 기초자료를 연계해 산업별 부가가치·고용·수출입을 산출하며, 산업연관표·국민계정은 국가경제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상위 체계로 기능한다.

종합하면, 이러한 유사 가공통계들은 행정자료 결합·표준분류 기반 재분류·법적 근거에 기반한 자료수집 체계를 갖춘다는 공통점을 지니며, 향후 저작권통계의 기초자료 확장, 분류체계 개선, 행정자료 연계 강화를 위한 중요한 참고 기반이 된다.

(2) 조사통계 기반 유사통계

저작권산업과 밀접한 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유사 조사통계는 산업 관련 조사통계 79건 중 콘텐츠산업조사, 광고산업조사, 예술인실태조사, 신문·잡지산업실태조사, 디자인산업통계, 스마트미디어산업실태조사,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산업실태조사, 방송산업실태조사 등 8종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들 조사는 대체로 저작권 또는 콘텐츠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또는 개인(예술인)을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표본조사 또는 전수조사 방식으로 산업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부분의 조사통계는 국가데이터처 기업통계등록부 또는 전국사업체조사 결과를 표본추출틀로 활용하고 있으며, 필요시 관계 법령(신문법, 방송법 등)에 따라 구축된 등록 명부를 결합하여 모집단을 보완한다. 조사단위는 주로 사업체(콘텐츠·광고·디자인·스마트미디어·디지털크리에이터·방송 등)이며, 예술인실태조사의 경우 예술인 명부를 활용하여 개인 단위로 표본을 추출한다. 표본 설계는 업종·지역·규모를 반영한 층화추출을 기본으로 하되, 산업 특성상 규모가 크거나 정책적 중요성이 높은 집단(예: 종사자 30인 이상 광고사업체, 방송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조사항목은 매출액·종사자 수·경영현황·해외거래 등 저작권통계와 공통되는 항목에 더해, 각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 항목(플랫폼 유형, 수익모델, 프로그램 제작비, 예술활동 수입 구조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조사주기는 1~3년, 공표시점은 대체로 조사기준년도 익년 또는 익익년에 위치한다.

종합하면, 유사 조사통계들은 기업통계등록부·전국사업체조사·등록 명부 등을 활용한 모집단 구축과 층화표본설계,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조사항목 구성, 정기적인 공표체계를 갖추고 있어, 향후 저작권통계의 조사통계 전환 시 모형 설계(모집단 정의, 표본틀 구축, 표본설계, 조사항목 구성 등)에 직접적인 참고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3. 유사통계 검토 결과

유사통계 분석 결과, 행정자료 기반 가공통계와 표본조사 기반 조사통계는 각각의 장단점을 지니며 저작권통계 개선을 위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기술무역통계·ICT수출입통계·국제수지통계·산업연관표·국민계정 등 행정 및 기존 국가통계 기반의 가공통계는 자료의 정기성·안정성·법적 근거·분류체계의 표준화 등에서 강점을 보인다. 특히 산업연관표와 국민계정은 부가가치율, 산업 간 투입·산출 구조 등 거시적 구조를 정합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저작권산업의 경제기여도 산출을 위해 반드시 유지해야 할 핵심적인 기반 통계로 평가된다. 다만 이러한 거시적 가공통계는 기업·산업 세부 구조, 신산업·플랫폼 기반 산업의 미세한 변화를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어, 창작자·1인 미디어·영세기업 등 신유형 경제활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반면, 콘텐츠산업조사·광고산업조사·예술인실태조사·디자인산업통계·스마트미디어·디지털크리에이터·방송산업조사 등 조사통계 기반 유사통계는 모집단 정의의 명확성, 표본틀(기업통계등록부·전국사업체조사 등)의 안정성, 층화추출 기반의 대표성 확보, 공표항목의 세부성에서 강점을 가진다. 특히 콘텐츠·디지털·플랫폼 기반 조사들은 저작권 기반 업종과 상당 부분 중첩되므로, 향후 저작권통계의 조사통계 전환 시 모집단 정의·표본틀 구축·표본설계 방식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참고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표본조사 방식은 응답부담, 비표본오차·미응답 편향, 신생 산업 및 비사업자 기반 창작자의 포착 한계 등 고유의 제약을 가지며, 산업 전체 규모를 안정적으로 추정하는 데에는 가공통계 대비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조사통계를 단독으로 활용하기보다는 가공통계와 조사통계, 행정자료DB를 결합한 혼합형 작성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2-4> 유사통계(가공통계) 작성현황 비교

통계명	작성대상·포괄범위	기초자료	공표주기/시점	작성방법·수집과정	비고·법적근거
기술무역통계 (2022)	기술수출·도입 현황, 규모, 수지 및 수지비	한국은행 외환거래자료·기술도입대가지급상황 월보 자료	기준: 전년도(1~12월) 수집: 익년 4~5월 공표: 익년 12월말	한국은행 전산망 DB 활용, 과기정통부에 제공 / 산업분류는 KSIC, 기술분류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체계 적용	기술수출통계는 기업부담완화 및 통계 신뢰성 확보 위해 조사통계→가공통계 전환(2015), 법적근거에 따라 매년 자동 수집
정보통신기술 산업통계 (2022)	ICT 제조·서비스업 사업체 수, 종사자수, 급여액, 출하액, 부가가치 등	통계청 광업제조업·서비스업·도소매업조사, ICT 실태조사, MDIS 시스템	기준: 2021.12.31 공표: 익익년 8월 (2023.8.31)	통계청 조사결과 및 ICT실태조사 가공 / ICT산업분류 (통계청 특수분류) 기준 가공	ICT제조(10인수), 서비스(1인수)로 조사기준 상이 해외 OECD 통계 병행
ICT수출입통계 (2024)	ICT 산업의 모든주체(개인, 기업 등) 수출입·수지 동향 (산업별·국가별·기업규모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DB	작성·공표: 매월 작성: 익월 초	무역통계진흥원 상세품목수출입 DB → ICT통합분류체계 로 가공·분석 / 전산화	자료수집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정보통신산업진흥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통계법 근거 / KCS·NIPA 협력 MOU)
산업연관표 (2022)	국민경제 내 재화·서비스 생산·처분 과정 전체 거래	통계청, 관세청, 한은, 금융감독원, 교육부 등	기준년표: 5년 연장표: 1년	경제총조사·통관자료·외환수급자료 등 다양한 기초자료 기반 실시 조사 / IO코드 분류	KSIC·IO·HS·IO·국세청 업종코드 매칭파일 활용
국민계정 (2024)	전국 모든 경제주체 (가계·기업·정부·비영리단체 등) 경제활동	통계청·국세청·관세청 등 생산·수출입 관련 DB	분기 및 연간 작성 공표: 익익년 6월	산업·상품코드 매칭(KSIC-KCEAN-IO) 기반 통합체계	국민계정 산업분류(KCEAN)-I-O 분류체계 적용
국제수지통계 (2024)	거주자·비거주자 간 경제거래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	관세청 통관·외환수급·외화B/S·정부·금융기관 등	월별 작성 월중 통계: 익익월초 지역별: 익년 6월	기초자료를 국제수지 기준에 맞게 조정 (계상시점·분류 등)	외환전산망·관세청·금융감독원 등 다기관 자료 연계
문화체육관광 산업통계 (2022)	문화·체육·관광산업 영위 사업체(3대분류, 25중분류)	기업통계등록부, 4대보험 DB, 관세청 수출입통관자료	주기: 연간 공표: 익익년 12월	행정자료(기업·보험·관세) 연계 가공통계 / 산업분류체계 별 분석	매출·일자리·수출입 모두 가공통계 / 문화체육관광 분야 전용 품목분류 적용

<표 2-5> 유사통계(조사통계) 작성현황 비교

통계명	조사대상·모집단	작성단위·규모	표본추출틀	주요 조사항목	조사방식	공표시점
콘텐츠산업조사 (2023)	11개 산업 중 출판·음악·게임·캐릭터·지식정보·만화·애니메이션·콘텐츠솔루션(실태조사), 영화·광고(타 조사 인용), 방송(방통위 인용) /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11대분류(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사업체 약 18,118개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 2022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연계)	사업체정보, 매출, 종사자, 해외거래 (수출입)	방문면접	익년 2월
광고산업조사 (2023)	광고대행·제작·전문서비스·인쇄·온라인·옥외광고 영위 사업체 / 기업통계등록부 내 광고사업체	사업체 1,900개 (30인수 전수, 30인미만 표본)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 (2021~)	사업체 현황, 고용, 매출·비용, 해외거래	방문·온라인 병행	익년 12월
예술인실태조사 (2023)	문학·미술·공예 등 14개 예술분야 활동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협회회원, 신탁단체 등록 예술인	개인 5,000명	예술인 명부(49개 기관 협회·단체·지자체 제공)	수입·지출, 저작권 보유, 활동 현황	방문·온라인 병행	3년 주기 / 익년 5월
신문·잡지산업 실태조사 (2023)	신문법상 신문·인터넷신문 / 지자체 등록 정기간행물 중 정상 발행 확인 사업체	사업체 (신문 6,218, 잡지 1,796)	문체부 정기간행물등록 리스트	사업체현황, 재무, 종사자	방문·온라인 병행	익년 12월
디자인산업통계 (2024)	디자인산업분류 해당 5인수 사업체(전문·활용업체), 공공부문(부처·지자체)	사업체 및 기관 (일반 20,000, 활용 1,800, 전문 600, 공공 285)	전국사업체조사(2022) / 디자인산업특수분류	매출, 이익, 종사자	방문·온라인 병행	익년 2월
스마트미디어산업 실태조사 (2022)	OTT, 디지털사이니지, 소셜미디어, 실감미디어 등 스마트미디어 산업체	사업체 1,200개 (전수, 실제 711개 응답)	전국사업체조사 기반 ICT통합분류	소재지, 종사자, 매출, 인력	방문·온라인 병행	익년 6월
디지털크리에이터 미디어산업실태조사 (2024)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산업 KSI10 해당 사업체	사업체 1,000개	전국사업체조사(2022) 연계 판별조사	일반·경영·인력·사업·수출현황	방문·온라인 병행	익년 11월
방송산업실태조사 (2024)	과기정통부·방통위 등록 방송사업자 / 방송매출 1억수 실운영 사업자	사업체 387개 (전수)	방통위·과기정통부 방송사업자 등록 명단	종사자, 매출, 투자, 제작비	온라인(이메일·팩스·우편)	익년 12월

4. 시사점 및 저작권통계에의 적용 가능성

유사통계 검토 결과는 저작권통계의 기초자료 체계, 분류체계, 지표 구성, 작성방식 전반에서 여러 개선 가능성을 제시한다.

첫째, 기초자료 측면에서는 기업통계등록부와 전국사업체조사의 활용 및 유용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표본틀 기반 구조는 매년 안정적으로 모집단을 갱신할 수 있어, 저작권통계 역시 해당 자료와의 연계를 강화할 경우 시의성과 산업 변화 반영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분류체계 측면에서는 콘텐츠산업조사나 스마트미디어·디지털크리에이터와 같이 특수산업분류를 주기적으로 개정하는 사례가 참고가 된다. 현행 KSCIC은 개정 주기가 길어 신산업 포착에 한계가 있으므로, 주기적 세분류 정비와 신유형 경제활동 코드 신설, KSIC-KSCIC 매핑 현행화 등이 필요하다.

셋째, 경제기여도 측정에서 보조지표 확충의 필요성이 확인된다. 유사통계가 매출·고용뿐 아니라 수출입·일자리·경영지표 등 다층적 자료를 제공하듯, 저작권통계도 중분류 부가가치, 플랫폼 기반 수익·거래지표, 창작자 소득구조 등 새로운 지표를 도입할 경우 정책 활용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넷째, 작성방식은 현재의 가공통계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점진적 조사통계 도입 및 행정DB를 반영한 혼합형 체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산업연관표·국민계정이 제공하는 거시적 안정성과 조사통계의 세부 구조 파악, 행정·플랫폼 데이터의 신산업 포착 능력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가공통계 단독 체계의 근본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표체계 역시 중분류 단위의 세분화와 플랫폼 기반 경제활동 지표 도입 등을 통해 확장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존의 유사 조사통계에서 이미 확인된 접근 방식으로, 저작권통계의 정책 활용도 제고에 직접적인 기여가 가능할 것이다.

제 5 절 전문가 자문 결과

저작권산업 통계의 품질 개선 및 조사통계 전환 가능성에 대한 FGI를 통합 전문가 자문회의는 저작권통계의 현황과 한계, WIPO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조사통계 도입 가능성, 분류체계 및 기초자료 확보 방안 등 전반적인 작성체계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 FGI를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

○ 일시 및 장소

2025. 10. 17. (금) (10:30~12:00) 서울역 회의실

○ 자문위원⁴⁾

기술, 정책, 산업, 통계 현장을 포괄하는 실무 중심의 균형 잡힌 전문가 자문단 구성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저작권통계의 작성체계 전반에 대해 검토한 결과, 국제기준 적용의 타당성과 국내 현실 반영의 균형, 실태조사 전환 가능성, 분류체계 보완, 시의성·기초자료 확보 등 다양한 개선방향이 제시되었다. 먼저, 현행 저작권통계는 WIPO 기준을 충실히 준용하고 있으나, 국내 산업 구조 변화와의 괴리가 존재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부분저작권 요소비중이 장기간 갱신되지 않았고, 디지털 기반 산업·창작자 경제의 성장 속도에 비해 분류체계(KSCIC) 반영이 부족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웹툰·웹소설 등 주요 분야는 2025년 개정에서 반영되었으나, 기타 대표적인 신유형 산업에 대한 추가 보완 및 저작권 요소비중에의 적용이 요구되었다. 즉 KSCIC의 큰 틀은 국제비교 가능성은 유지하되, 국내 산업 특성을 반영한 보완적 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전문가 의견이 일치하였다.

4)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에서 저작권통계 및 저작권산업분류체계 등 관련 제도·정책 이해도가 높아 본 저작권산업의 포함범위 설정 자문 및 근거, 정책, 실무 등 자문에 적합한 전문가들로 자문위원 구성함.

또한 공표 범위와 지표 한계가 강조되었다. 저작권통계는 매출·부가가치·고용 중심으로 단순화되어 있어, 노동생산성·수출입 규모·성장률·저작권료·라이선스 수입 등 산업 구조 파악에 필요한 지표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지표는 내부적으로 산출 가능하지만 공표 절차가 정비되지 않아 실제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조사통계 전환 논의에서는 저작권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면적 조사통계 체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표본틀 부재, 조사비용·응답 부담 증가, 신생 산업의 불안정성이 주요한 제약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다만 핵심저작권산업이나 창작·제작 중심의 일부 산업은 실태조사 방식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안되었으며, 대표 표본틀로는 국가데이터처 기업통계등록부와 KSIC 연계체계가 가장 적합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반면 1인 창작자·프리랜서는 명부 부재와 활동 불안정성으로 인해 조사 접근이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되었다. 즉 표본틀 구축·응답률 관리는 주요 선결 요인으로, 핵심산업 중심 전수조사·표본조사 방식이 효과적으로 평가되었다.

기초자료 확보 및 시의성 측면에서는 산업연관표·경제총조사 등 주요 기초자료의 작성 시기 자체가 1~2년 이상 지연되므로, 저작권통계의 시의성 개선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기관 간 자료 연계 자동화, MOU 기반 데이터 접근 확대, 분류체계 개정 시 알고리즘 정기 업데이트 등의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저작권통계가 국제기준과 국내 산업 현실 간 균형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전면적인 조사통계 전환보다는 현행 가공통계를 유지하되, 핵심 산업에 대한 보완적 실태조사와 KSCIC 개편, 보조지표 확충 등 단계적 접근이 현실적인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단기적으로는 분류체계 정비와 기본지표 보완, 중기적으로는 핵심 분야 실태조사 병행, 장기적으로는 표본틀 확립 후 점진적 조사통계 전환을 검토하는 단계적 발전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2-6> 전문가 자문회의 검토 결과 요약

구분	주요 논의 내용	시사점
통계의 현황 및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IPO 기준 중심, 국내 현실 반영 부족 • 부분저작권 요소비중 미갱신 • 지자체 단위 통계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비교 유지 + 국내 산업구조 반영 필요 • 요소비중 갱신 필요
국제기준-국내현실 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IPO 기준은 국제비교 중시, 산업 세분화 한계 • 디지털-플랫폼 기반 산업 반영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IC-KSCIC 정비 및 세분류 강화 필요
지표 개선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생산성, 수출입, 성장률, 파급효과 등 요구 • 산출 가능하나 공표 절차 미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지표 체계 확립 및 승인절차 정비 필요
조사통계 전환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 조사통계는 현실적 어려움(비용·표본틀·시차) • 핵심산업 또는 일부 영역만 실태조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조사 혼합형 모델 적용 필요 • 기업통계등록부 기반 표본틀 활용
조사대상 표본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체 단위 조사 적합 • 1인 창작자·프리랜서 조사 현실적 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체 중심 실태조사 + 창작자 보조자료 활용 필요
자료 확보·시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자료 시차 불가피(최대 2년) • 대체자료 확보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간 MOU, 행정DB 연계 확대 필요

<표 2-7> 전문가 검토 단계별 개선(안)

구분	단기(1~2년)	중기(3~5년)	장기(5년~)
작성체계	가공통계 유지	핵심산업 중심 실태조사 병행	단계적 조사통계 전환
분류체계	KSCIC 보완·세분류 반영	KSIC-KSCIC 매핑 고도화	분류체계 정기 개편체계 확립
지표 개선	노동생산성 등 부가지표 추가	수출입·저작권료·플랫폼 매출 지표 확장	통합 플랫폼·창작자 데이터 도입
자료 연계	행정DB 연계 기반 조성	MOU 기반 데이터 자동화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

제 6 절 검토내용 종합

본 연구는 저작권통계의 가공통계 품질 고도화와 조사통계 전환 타당성 검토를 목표로 작성범위, 산출방식, 공표체계, 유사통계,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저작권산업의 빠른 구조 변화와 플랫폼 기반 창작활동 확대에 의해 현행 가공통계만으로는 대표성·시의성·정합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가공통계 품질개선의 고도화 방안

(1) 분류체계(KSCIC) 주기적 정비의 필요성

현행 KSIC-KSCIC 매핑은 신산업 반영이 늦고, 일부 산업의 과소·과대 계상이 지속되는 등 구조적 한계가 확인되었다. 특히 웹툰·스트리밍·플랫폼 창작 등은 KSIC 내 적절한 코드를 찾기 어려워 산업 포착률이 떨어진다. 이에 따라 KSCIC 세분류 조정, 신규 코드 도입, 매핑 알고리즘의 정기 업데이트가 필수적이다.

(2) 기초자료(행정자료·국가통계)의 시차 및 불일치 보완

경제총조사, 산업연관표, 국민계정 등 기초자료 간 주기·수준 차이로 연도 간 불일치가 발생하고, 비공표 연도 추정 방식 또한 시의성을 저해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

- 기업통계등록부·전국사업체조사 등 매년 갱신되는 기초DB와 연계 강화
- 플랫폼 데이터·저작권료 DB 등 신규 행정자료의 활용
- 분류체계 개정 시 자동화된 매핑 갱신체계 구축

(3) 공표체계 및 지표 구성의 확장

현행 저작권통계는 대분류 중심 공표에 머물러 산업 내부 구조 해석이 제한적이다. 유사통계 사례(콘텐츠산업조사, 디자인산업통계 등)와 전문가 의견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공표체계 고도화가 요구된다.

- 중분류 단위 공표 확대
- 수출입 · 저작권료 · 플랫폼 매출 등 보조지표 신설
- 노동생산성, 장르별 성장률, 해외유통지표 등 정책활용도 높은 지표 추가

(4) 가공통계 체계의 한계 보완을 위한 혼합형 작성체계 도입

가공통계는 거시 구조 파악에는 유효하나 신산업 · 창작자 등 미시 구조는 포착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가공통계(산업구조 · 부가가치), 조사통계(기업 단위 실태), 행정 · 플랫폼 DB(디지털 유통 · 저작권료)를 결합한 혼합형 작성체계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도출되었다.

2. 조사통계 전환 타당성 검토

(1) 전면 조사통계 전환의 현실적 한계

전문가들은 전체 저작권산업에 대한 조사통계 전환은 모집단 구축 곤란, 비용 · 응답부담, 1인 창작자 파악 한계 등으로 현실성이 낮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따라서 전면 전환보다 부분적 · 단계적 전환이 타당하다. 주요 이유는,

- 사업체 수 산정 불가(특히 1인 창작자 · 프리랜서)
- 표본틀 구축 미비(KSCIC 기반 모집단 구성 난항)
- 높은 조사비용 · 응답부담
- 조사 · 가공 데이터를 혼합할 때 발생하는 정합성 문제

(2) 주요 저작권산업 중심의 선택적 조사통계 도입

조사통계 도입 시 우선순위가 높은 산업은 출판·음악·웹툰·방송 등 핵심저작권산업, OTT·스트리밍·디지털창작 등 신산업 분야 등 변동성이 크고 정책적 중요성이 높아 실태조사를 통한 정밀지표 생산이 필요한 산업이다.

(3) 조사통계 전환 시 고려해야 할 운영 요건

- 표본틀은 기업통계등록부와 KSCIC 연계를 기반으로 구성
- 조사단위는 사업체 중심, 1인 창작자는 행정자료 보조 활용
- 조사항목은 매출·인력·유통·저작권료 등 핵심 항목 중심
- 응답부담은 온라인 조사·행정자료 연계로 최소화

특히 1인 창작자·프리랜서의 경우, 조사 어려움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었으므로 행정자료(플랫폼 로열티, 저작권 징수자료 등)를 통한 비조사형 보조통계 방식이 필요하다.

(4) 전환의 단계적 추진 필요

전문가들은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한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단기(1~2년): 가공통계 유지, KSCIC 정비·부가지표 보완
- 중기(3~5년): 핵심산업 실태조사 병행, 표본틀 구축
- 장기(5년 이상): 전체 또는 주요 산업군의 조사통계 기반 확대

즉, 조사통계는 전면 전환이 아닌 병행·보완적 도입이 현실적이며, 표본틀 확립 후 점진적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우선 가공통계의 품질 개선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조사통계 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 3 장 가공통계 품질개선 고도화 방안

제 1 절 가공통계 품질개선의 목적 및 방향

본 절의 목적은 저작권통계의 가공통계 체계를 보다 정교하고 현실적이며 정책 활용도가 높은 통계로 고도화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현행 작성방식의 구조적 특성을 유지하되, 산업 변화와 정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 정비, 기초자료 활용성 제고, 공표지표 확장, 그리고 혼합형 작성체계 도입을 핵심 목표로 설정한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작권산업 특성을 반영한 분류체계(KSCIC) 정비이다. 산업 신유형·세분화 추세에 맞춰 KSCIC 세분류 조정 및 매핑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산업 포착 정확도를 높이고, 통계 산출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 기초자료의 신뢰성과 시의성 제고이다. 경제총조사, 산업연관표, 국민계정 등 기존 활용자료뿐 아니라 기업통계등록부, 전국사업체조사, 저작권료·플랫폼 거래자료 등 연계 가능성이 높은 행정자료를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셋째, 통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공표체계 및 지표 구성의 확장이다. 대분류 중심에서 벗어나 중분류 단위 공표 확대, 저작권료·수출입·플랫폼 매출 등 산업 특성을 반영한 보조지표 도입을 통해 정책 분석의 깊이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가공통계의 근본적 한계를 보완하는 혼합형 작성체계 마련이다. 가공통계(거시구조), 조사통계(미시구조), 행정DB(신산업 포착)의 장점을 결합하는 단계적 작성 모형을 구축하여 통계의 대표성과 시계열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방향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향후 저작권통계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정책적 활용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가공통계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공통계 품질개선 고도화 방안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분류체계(KSCIC)의 정비 및 매핑 고도화

산업 변화 반영을 위한 세분류 조정, 신규 코드 도입, 정기적 매핑 업데이트 체계 구축을 통해 산업 포착률을 높인다.

(2) 기초자료 간 시차·자료구조 불일치 해소

경제총조사·산업연관표와 함께 기업통계등록부·전국사업체조사 등 매년 생산되는 자료를 보조기초자료로 연계하여 시계열 안정성을 확보한다.

(3) 공표체계 고도화 및 지표 확장

대분류 중심 공표를 중분류 단위로 확대하고, 저작권료·수출입·플랫폼 매출 등 산업 특성을 반영한 지표를 추가한다.

(4) 혼합형 작성체계 기반 마련

가공통계·조사통계·행정DB를 단계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작성체계를 설계하여, 신산업·창작자 기반 경제활동까지 포괄할 수 있는 고도화 체계를 구축한다.

제 2 절 분류체계 개선방안 부록5

저작권통계의 정확성과 대표성을 결정하는 핵심 기반은 저작권산업특수분류체계(KSCIC)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분류체계 문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저작권통계의 품질개선을 위한 분류체계 개선 및 고도화 방안을 제시한다.

1. 현행 분류체계의 주요 한계

(1) WIPO 기준과 국내 산업 간 구조적 괴리

WIPO 가이드는 창작-제작-배포-소비 중심의 경제활동 기반 구조이나, 국내 산업은 창작자-제작자-운영자-소비자가 혼재된 산업활동 기반 구조에 더 부합한다. WIPO 분류는 창작자 중심으로 단순화되어 있어, 한국의 매니지먼트·기획·공연단체·운영업 등 창작 지원 및 관리 산업의 비중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 반대로 국내 분류체계는 산업 전체 생태계를 포괄하나, 국제비교 목적에서는 과도한 범위 확장으로 인한 과대계상 우려가 존재한다.

(2) KSIC-KSCIC 매핑 구조의 한계

KSIC 내 적절한 코드가 없는 신산업은 기타 서비스업, 도매·소매업, IT용역업 등에 편입되어 산업 규모가 왜곡될 수 있다. 동일 KSIC 코드에서 저작권산업과 비저작권산업 활동이 혼재되어 있어 정밀 분리가 어렵다. 또한 KSIC 개정(예: 한국표준산업분류 11차 개정) 시 KSCIC 연계표 갱신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아 연속성·정합성 저하가 발생될 수 있다.

(3) 신산업 반영 부족

현행 저작권산업특수분류체계에는 2025년 개정으로 웹툰·웹소설 분야는 독립 세분류로 신설되어 반영되었으나, OTT·스트리밍·디지털콘텐츠 제작

등 일부 신산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산업 규모 축소 계상, 유통·배포 구조 미포착, 플랫폼 중심의 가치사슬 변화 반영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2. 분류체계 개선의 기본 방향

본 연구는 가공통계의 정확성·대표성·산업 포착력 제고를 위해 분류체계 개선의 다음 원칙을 제안한다.

(1) WIPO-KSIC-KSCIC 간 Multi-level 매핑 정교화

- 국제비교 가능성(대분류)과 국내 산업 반영(세분류)을 동시에 충족하는 다층적 매핑 구조 필요
- 국제기준 기반의 핵심저작권·부분저작권 구분 유지
- 국내 산업 생태계를 반영한 세분류·활동단위 중심 분류 강화

(2) 신유형·플랫폼 기반 산업의 분류체계 반영

- 디지털창작·스트리밍·플랫폼 유통 등 독립 세분류 신설
- 플랫폼 기반 저작권 수익(로열티·수수료·광고기반 모델)은 별도 경로로 계상

(3) 산업 가치사슬 기반 세분화

- 창작-제작-유통-소비 단계별 경제활동을 분리 계상할 수 있도록 구조 재편
- 제작자·운영자·플랫폼·유통업의 역할을 구분하도록 코드 체계 개선

(4) KSIC 개정과의 정합성 확보

- KSIC 개정(11차 등)과 연계한 KSCIC 자동 업데이트 체계 구축
- 매핑 알고리즘 및 연계파일의 정기적 검증 필요

3. 세부 개선방안

저작권산업의 가치사슬 변화와 플랫폼 기반 창작경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분류체계의 정교한 개편이 필요하다. 주요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작 지원·관리 산업을 별도 세분류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매니저먼트·공연기획·크리에이터 관리 등은 국내 시장에서 저작권 가치 형성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므로, WIPO에 없는 산업이라도 독립 분류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창작자-제작자-운영자-소비자로 이어지는 Multi-level 구조를 분류체계에 반영해야 한다. 제작·배급·플랫폼 운영이 동일 코드에 혼재된 현 구조는 산업 파악에 한계가 있으므로, 개인 창작자 분류와 기업 기반 산업 분류를 병행하고 단계별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저작권 사용 기반 서비스업의 범위를 재정의해야 한다. 저작물 사용으로 저작권료가 발생하는 산업만을 분리하고, 저작권과 직접 연관되지 않은 시설·여가업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넷째, 방송·영상 부문은 콘텐츠 산업과 전송 인프라 산업을 구분하여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WIPO 기준과 KSIC 개정 방향을 반영해 콘텐츠 제작·편성과 유선·위성 등 인프라 산업의 분리 구조를 마련한다.

다섯째,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분야의 세분화가 필요하다. 개발 유형별 분류와 창작·유통 단계 구분을 강화하고, 데이터베이스 제공업은 온라인정보서비스업과의 중복성을 고려해 재배치를 검토해야 한다.

여섯째, 온라인·플랫폼 기반 저작권경제를 포착하는 신규 분류를 도입해야 한다. MCN·크리에이터·스트리밍 등 플랫폼 기반 활동을 독립 산업군으로 구성하고, 로열티 정산 등 디지털 수익구조 반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3 절 기초자료 및 산출절차 개선방안

저작권통계의 정확성과 시의성은 기초자료의 안정적 확보와 연도 간 일관된 산출절차에 의해 좌우된다. 현재 가공통계 체계는 기초자료 간 공표시점의 차이, 일부 항목의 결측·불일치, 플랫폼 기반 거래자료의 미포함 등 구조적 제약을 안고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기초자료 확충 및 산출절차 정교화를 통해 저작권통계의 신뢰도와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우선, 기초자료의 최신성과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국가통계 및 행정자료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경제총조사·전국사업체조사·기업통계등록부 등은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중요한 기반자료이며, 산업연관표·국민계정과 함께 저작권통계 산출의 근간을 이룬다. 그러나 이들 자료는 공표 시점과 자료 범위가 상이해 연도 간 시차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매년 업데이트되는 기업통계등록부와 전국사업체조사를 중심으로 보조 추정자료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4대보험·통관자료·부가가치세 등 주요 행정DB와의 연계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산업 규모와 고용 변화를 보다 신속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분류체계가 변경될 때마다 KSIC-KSCIC 매핑과 산출 로직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여, 자료 불일치와 시계열 단절을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플랫폼 기반 창작경제의 확산을 고려할 때 민간 플랫폼과 관련 기관이 보유한 디지털 자료를 보조지표 형태로 통계체계에 편입하는 것이 요구된다. 웹툰·음원·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의 로열티 정산자료, 광고 기반 수익, 구독자 규모, 콘텐츠 거래량 등은 산업의 실질적 활동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임에도 현재 통계에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체계 구축, 유관기관과의 데이터 공유 협약, 신뢰성 있는 민간DB의 활용 등을 통해 디지털 기반 지표를 정기적으로 수집·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산출절차는 비가중 보간·외삽 중심의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정교한 추정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공표 연도에는 전수 기반의 실제값을 사용하되, 비공표 연도에는 산업 성장률, 부가가치율, 매출 구조 변화 등을 반영한 회귀 기반 추정이나 가중 외삽 방식 등을 적용함으로써 추정치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분류체계 개정이나 기초자료 변경이 발생할 경우, 기존 연도값을 재산출해 연속된 시계열을 복원하는 연결계열(bridge series) 구축이 필요하다. 산출 과정에서 적용되는 보정·대체·결측 처리 기준 역시 투명하게 문서화하고, 공표자료에는 주요 조정 내역을 명확히 제시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지표 구성과 공표 방식 또한 산업 변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현행 대분류 중심의 공표 구조는 산업 내 세부 영역별 분석에 한계를 가지므로, 기초자료의 활용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중분류 단위의 매출·부가가치·고용·수출입 등 구조적 지표를 생산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플랫폼 기반 활동, 창작자 수입 구조, 저작권료 흐름, 스트리밍 기반 해외유통 실적 등 새로운 경제활동을 반영한 보조지표를 신설함으로써 정책 수요에 부응하는 지표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초자료의 정합성 검증과 산출 절차의 표준화는 가공통계 체계의 품질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이다. 자료 간 불일치, 결측, 이상값을 점검하는 체계적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대체·보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반복 가능한 산출 프로세스를 확립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들은 산출 매뉴얼과 함께 자동화된 산출 패키지에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통계 생산 과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초자료 및 산출절차 개선은 가공통계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저작권산업의 구조 변화를 반영하며, 향후 조사통계와의 연계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

제 4 절 보조지표 및 추가 고도화 방안

현행 저작권통계는 매출액·부가가치·고용규모 등 산업활동의 절대규모를 중심으로 산출되고 있어 산업의 효율성, 성장성, 대외경제활동, 파급효과 등을 다각도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핀란드·캐나다·미국 등 주요 국가는 문화·저작권산업의 실질적 경제성과를 포착하기 위해 부가가치와 고용뿐 아니라 생산성, 성장률, 수출입, 디지털경제 기여도 등 다양한 파생·보조지표를 체계적으로 산출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운영 사례는 국내 저작권통계 또한 유사한 수준의 고도화와 지표 다양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절에서는 해외 통계산출 체계 분석을 토대로 추가 자료수집 없이 기존 산출 결과를 확장하여 생성할 수 있는 보조지표, 그리고 국제비교 가능성과 정책 활용도가 높은 파급지표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1. 해외 지식재산권 기반 산업 통계체계 현황

핀란드·캐나다와 미국의 지식재산권 기반 산업 통계체계는 다음과 같이 관리되고 있다.

(1) 핀란드·캐나다

- 두 국가는 문화위성계정(Cultural Satellite Account, CSA)을 운영하며, 이를 국가 GDP와 연계한 통계 시스템으로 구축·관리하고 있음.
- 저작권산업을 문화·창의산업의 하위 구성요소로 통합하여 주제별로 체계적 관리 수행.

○ 주요 산출 통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됨.

- 핵심지표: 부가가치 · 고용규모 · 산출액
- 파생지표: 노동생산성 · 성장률
- 무역지표: 수출입, 특히 무역통계의 지식재산권 사용료(Royalties) 항목을 활용하여 저작권 관련 국제거래를 파악

(2) 미국

○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 (IIPA)는 U.S. Census Bureau 와 Bureau of Economic Analysis (BEA)의 공식 통계에 기반하여 저작권 관련 산업지표를 산출한 보고서, Copyright Industries in the U.S. Economy를 발간함.

○ 주요 산출통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됨

- 핵심지표: 부가가치 · 고용규모
- 파생지표: 노동비용 및 임금생산성 · 성장률
- 무역지표: 수출입
- 디지털경제지표: 디지털경제 내 저작권산업 부가가치⁵⁾

2. 보조지표 확충의 필요성

핀란드 · 캐나다 · 미국 등 주요국의 사례는 저작권산업의 실질적 경제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핵심지표(부가가치 · 고용 · 매출액)뿐 아니라 생산성, 성장률, 수출입, 디지털경제 기여도 등 다양한 파생 · 보조지표 체계를 구축해 온

5) 유발계수(multiplier effect)란 산업연관표(Input-Output Table)을 이용하여 특정산업의 생산활동이 경제전반에 미치는 연쇄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값

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해외의 통계체계는 산업 구조와 활동을 다각도로 포착하며, 저작권산업의 경제적 위상을 국가 경제 내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반면, 현행 국내 저작권통계는 산업의 절대규모 중심의 산출체계에 머물러 있어 산업 내 질적 변화와 역동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저작권 기반 산업이 국가 콘텐츠 경쟁력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만큼, 산업의 구조·효율·대외활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확장 지표체계의 구축은 필수적 과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해외 사례는 국내 저작권통계도 기존의 규모 중심 산출체계를 넘어 산업의 질적 성장과 국제적 위상을 평가할 수 있는 보조지표의 확충과 고도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3. 국내 적용 가능한 주요 보조지표 제안

해외 사례 분석을 토대로, 국내에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적용 가능하면서 저작권산업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보조지표들을 제안한다.

노동생산성과 성장률은 각각 산업의 효율성과 성장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현행 국내 저작권통계에서 이미 산출되는 항목들로부터 단순 계산을 통해 즉시 도입할 수 있다.

또한 수출입규모 지표로써 대외경제활동과 산업연관표를 기반으로 한 유발계수는 기존에 조사·발표되고 있는 국내 통계들을 연계함으로써 추가 조사의 부담 없이 생성 가능한 지표들이다.

(1) 산업 효율성 지표 - 노동생산성(Labor Productivity)

$$\text{노동생산성}_t = \frac{\text{부가가치}_t}{\text{종사자 수}_t}$$

- 산업의 질적 역량과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핀란드·캐나다·미국 등 해외에서도 핵심 보조지표로 활용됨
- 추가 자료 수집 없이 현행 국내 저작권통계의 기존 산출지표를 활용하여 산출 가능함
- 기대효과
 - 산업 내 고부가가치 부분과 저효율 부분의 구조적 차이를 파악.
 - 핵심 저작권산업과 전체 저작권산업간의 효율성 비교 가능.

(2) 산업 성장성 지표 - 성장률(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

$$CAGR = \left(\frac{\text{부가가치}_t}{\text{부가가치}_0} \right)^{1/n} - 1$$

- 연평균복합성장률(CAGR)을 활용하여, 매년 일정 비율로 성장한다고 가정할 때의 기간별 평균 성장률을 산출함.
- 산업의 성장 속도와 구조적 변화(확장·정체) 추이를 시계열 기반으로 객관적·정량적으로 평가 가능함.

○ 단기(1년), 중기(5년), 장기(10년)로 기간 구분 가능

○ 기대효과

- 산업의 정체·확장 국면 판단 가능

- 정책효과(규제·지원정책 등)의 시차효과 분석에 유용

<표 3-1> 한국 저작권 통계에 근거한 파생보조지표 산출 예시

구분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 체 산 업	종사자수	1,577,904	1,575,093	1,673,366	1,652,396	1,751,385	1,865,098	1,920,271	2,372,161	2,306,786	2,317,325
	매출액	308,428,161	301,372,271	342,727,393	317,384,262	320,322,724	338,967,146	362,064,668	442,459,607	433,280,825	467,560,312
	부가가치액	120,644,076	128,884,159	126,558,349	136,319,824	150,739,541	169,223,316	181,711,715	224,309,776	229,600,289	235,489,336
	노동생산성	76.5	81.8	75.6	82.5	86.1	90.7	94.6	94.6	99.5	101.6
	단기 성장률 (CAGR_1년)		6.83%	-1.80%	7.71%	10.58%	12.26%	7.38%	23.44%	2.36%	2.56%
	중기 성장률 (CAGR_5년)						7.00%	7.11%	12.13%	10.99%	9.33%
핵 심 산 업	종사자수	814,278	836,500	892,014	893,863	1,060,288	1,097,127	1,142,186	1,480,290	1,503,264	1,530,546
	매출액	131,227,654	136,902,240	156,786,960	153,003,499	166,773,307	175,770,805	194,794,125	244,110,691	262,913,931	289,972,692
	부가가치액	52,987,648	61,061,319	68,538,548	68,629,445	88,416,174	100,054,411	110,886,249	143,446,207	155,915,538	159,773,003
	노동생산성	65.1	73.0	76.8	76.8	83.4	91.2	97.1	96.9	103.7	104.4
	단기 성장률 (CAGR_1년)		15.24%	12.25%	0.13%	28.83%	13.16%	10.83%	29.36%	8.69%	2.47%
	중기 성장률 (CAGR_5년)						13.56%	12.67%	15.92%	17.84%	12.56%

☞ 저작권산업(전체산업 및 핵심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함, 효율성 개선됨.

핵심산업의 노동생산성증가율이 전체 산업에 비해 빠름

성장세 최근 둔화되고 있음

(3) 수출입 규모 지표 - 대외경제활동

저작권산업의 해외진출과 대외경제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수출입 지표는 필수적이지만, 현재 공식 통계에서는 이를 직접적으로 산출하지 못하고 있다. 활용 가능한 기존 통계들은 저작권 범위와의 불일치가 존재하므로, 단계적·보완적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한국은행 국제수지통계의 지적재산권 사용료 수출입통계는 IMF BPM6 (IMF, 2009) 기준에 따라 로열티 흐름을 포착하는 대표적 지표로, 국제 비교 가능성이 높다. 다만 특허·브랜드 등 비저작권 요소가 포함되므로, 저작권산업 규모의 대략적 상한을 보여주는 1차적 참고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그림 3-1〉 참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산업 수출액⁶⁾은 상품·서비스 기반 수출 규모를 제공하여 저작권 분야의 해외활동을 보완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 외 항목이 포함될 수 있고, 세세분류가 공개되지 않아 원자료 확보 후 저작권 관련 기업을 선별하는 추가 가공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지표는 보조지표로 활용하되 공식 저작권 수출액으로 해석하는 것은 제한적이다.

한편 미국 IIPA⁷⁾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는 저작권산업의 해외시장 규모를 정부의 수출통계로는 충분히 포착할 수 없다고 보고, 산업협회와 민간조사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해 ‘Foreign Sales and Exports’ 라는 보완지표를 산출⁸⁾하나, 이는 민간조사 기반 수출액 산출 방식으로 응답편향·추정치 성격 등으로 인해 승인통계 방식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수출입 지표는 ①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출입, ② 콘텐츠 수출액의 이중 구조로 활용하되, 장기적으로는 저작권산업 범위에 맞춘 재가공·세분화 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6) 콘텐츠산업 수출액 통계는 저작권 외 항목이 포함될 수 있고, 한국은행의 지식재산권 사용료 통계와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합산이 어려움. 또한 세세분류 단위로 공표되지 않기 때문에 원자료를 별도로 확보한 뒤 저작권 관련 기업만 선별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조사 대상 모집단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이러한 과정을 거치더라도 저작권 외 수출액이 일부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7) 미국의 저작권 기반 산업(Copyright Industries)을 대표하는 주요 산업협회들의 연합체로 미국 정부(특히 USTR, BEA, Census Bureau 등)와 협력하여 저작권산업의 경제적 기여도·고용·수출입 규모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매년 발간함. 미국 내에서 저작권산업 경제효과 산출을 가장 오랫동안 진행해온 기관이며 저작권산업의 GDP 기여도, 고용 규모, 수출액, 성장률 등 대표지표를 산출하는 주체로 국제적으로 저작권산업 경제기여도 추계의 기준처럼 활용됨.

8) 미국 IIPA가 활용하는 Foreign Sales and Exports 지표는 공식 정부통계가 아니라, 정부자료와 민간자료를 혼합해 산출하는 보완적 추정치에 가까움. 기본적으로 U.S. Census Bureau의 Service Annual Survey 가운데 “Estimated Export Revenue for Employer Firms” 통계를 기초자료로 사용하지만, 음악·영화·방송·소프트웨어·출판 등 일부 산업은 민간 조사자료를 추가로 활용해 해외매출 규모를 추정함. 세부 산출 방식이 공개되지 않고 조사에 근거한 추정이라고 명시된 수준임. 이에 신뢰도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하여 추정 기반의 보완지표로는 활용 가능하나 공표 통계의 표준 산출방식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지식재산권 **콘텐츠산업**

- 합계**
- 산업재산권**
 - 특허 및 실용신안권
 -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 상표권
 - 프랜차이즈 영업·판매권
 - 디자인권
- 저작권**
 - 문화예술저작권**
 - 음악·영상저작권
 - 어문·연극저작권
 - 연구개발 및 SW저작권**
 - 연구개발저작권
 - 컴퓨터SW저작권
 - 데이터베이스권
- 기타지식재산권

- 합계**
- 콘텐츠산업**
 - 출판산업
 - 만화산업
 - 음악산업
 - 영화산업
 - 게임산업
 - 애니메이션산업
 - 방송 및 영상산업
 - 광고산업
 - 캐릭터산업
 - 지식정보산업
 - 콘텐츠솔루션산업
 - 공연산업

ICT산업 **지식서비스**

- 합계**
- ICT 산업**
 - 정보·통신·방송 서비스업**
 - 통신서비스업**
 - 유선통신 서비스업
 - 무선통신 서비스업
 - 통신재판매업
 - 기타전기통신업
 - 방송서비스업**
 - 지상파방송 서비스업
 - 유료방송 서비스업
 - 방송프로그램 공급업
 - 정보서비스업**
 - 정보인프라 서비스업
 - 정보매개 및 제공 서비스업
 -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츠 개발 및 제작업**
 -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IT서비스 공급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컴퓨터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기타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 디지털콘텐츠 개발 및 제작업**
 - 디지털출판 콘텐츠 개발 및 제작업
 - 디지털영상 콘텐츠 개발 및 제작업
 - 디지털음악 콘텐츠 개발 및 제작업
 - 디지털교육 콘텐츠 개발 및 제작업

- 합계**
- 지식재산권 사용료**
 - 산업재산권**
 - R&D 기반 권리
 -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 저작권**
 - 멀티미디어 저작권
 - 컴퓨터 및 모바일 소프트웨어
 - 기타 지식재산권
- 정보, 통신서비스**
 - IT 개발 및 운영 서비스
 - 정보제공 및 플랫폼 서비스
- 문화, 여가서비스**
 - 멀티미디어 제작 서비스
 - 공연 및 전시 관련 서비스
 - 기타 개이 무한 여가 오락 서비스
- 전문, 사업서비스**
 - 연구개발 서비스
 - 전문 및 경영 서비스**
 - 법률 및 회계 서비스
 - 경영 컨설팅 서비스
 - 광고 및 PR 서비스
 - 기타 전문, 사업 서비스**
 - 설계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 과학기술 및 검사 서비스

<그림 3-1> 한국은행 지식서비스 무역통계 산업유형 구분

(4) 경제 파급효과 지표 - 유발계수(Multiplier Effect)

저작권산업의 생산활동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연쇄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산업연관표 기반 유발계수⁹⁾를 보조지표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유발계수는 생산·부가가치·고용 측면에서 산업의 직·간접 기여도를 정량화할 수 있어, 기존 규모 지표를 보완하는 중요한 정책지표가 된다.

① 생산 유발계수(Production Multiplier)

- 산업간 연쇄생산효과 평가
- 저작권 산업 1단위 생산증가가 전체 경제의 총생산을 얼마나 유발하는가 측정

② 부가가치 유발계수(Value-Added Multiplier)

- 부가가치 기여도 파급효과
- 저작권산업의 생산활동이 부가가치 증가에 미치는 효과

③ 고용유발계수

- 고용창출력평가
- 저작권 산업의 생산활동이 직/간접적으로 유발하는 고용규모

○ 기대효과

- 저작권 산업의 국가경제 내 전략적 중요성 제시
- 정책당국의 예산 타당성 판단 근거로 활용 가능

안길효, 이상규(2018)에 근거하여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중분류)에 공시된 유발계수를 활용하여, 저작권 관련 산업군과의 대응 매칭표를 <표 3-2>와 같이 재구성하였다. 한국은행 투입산출표 중분류 중 ‘인쇄·출판’, ‘방송서비스’, ‘영상·오디오 제작’, ‘소프트웨어·IT서비스’, ‘전문서비스’, ‘문화·여행·오락 서비스’ 등 관련 항목을 대응시켜 저작권산업의 파급효과를 <표 3-3>와 같이 도출하였다.

중분류 수준의 유발계수는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의 분류체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산업의 세부 분류기준과 완전히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세분류 단위의 유발계수

9) 유발계수(multiplier effect)란 산업연관표(Input-Output Table)을 이용하여 특정산업의 생산활동이 경제전반에 미치는 연쇄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한 값

산출이 필요하다. 그러나 세분류 단위 유발계수를 계산하려면 고차원 행렬 연산과 전용 코딩 작업을 별도로 수행해야 하며, 이를 장기적으로 KCC가 직접 관리하기에는 상당한 운영 부담이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세분류 단위 유발계수가 실제 정책 활용에서 중분류 대비 얼마나 추가적인 효용을 제공하는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는 중분류 수준의 유발계수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이때, 표 3-2의 분류 매칭의 조정은 가능하다. 세분류 단위로의 확대와 세부 산출체계 구축 여부는 중기적 검토 과제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 3-2>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중분류) 산업 매칭

안길효외(2018) 저작권산업 구분	한국은행 투입산출표 대응항목
연극음악 및 기타 예술	스포츠 및 오락 서비스
영화 및 비디오	영상·오디오물 제작 배급
사진 및 전문디자인	과학기술 및 기타 전문서비스
인쇄·신문 및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신문 및 출판 서비스
방송	방송서비스
광고	사업관련 전문서비스
도서관 및 전시관 등	문화 및 여행 관련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및 기타 IT서비스
정보 및 컴퓨터관리 서비스	정보서비스

<표 3-3> 유발계수 산출 결과

	2022			2023		
	생산	부가가치	고용	생산	부가가치	고용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2.25	0.78	7.38	2.22	0.80	8.03
방송서비스	1.94	0.75	6.69	1.89	0.75	6.55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및 기타 IT서비스	1.65	0.86	7.19	1.61	0.86	7.48
신문 및 출판 서비스	1.84	0.69	9.60	1.84	0.70	9.10
영상·오디오물 제작 배급	2.02	0.94	7.65	1.95	0.94	7.43
사업관련 전문서비스	2.10	0.89	7.35	2.14	0.90	7.07
과학기술 및 기타 전문서비스	1.55	0.90	6.56	1.53	0.91	6.70
문화 및 여행 관련 서비스	2.07	0.82	9.79	1.94	0.85	9.33
스포츠 및 오락 서비스	1.75	0.87	6.52	1.70	0.89	6.53
정보서비스	4.33	0.78	4.33	4.43	0.78	4.43

※ 고용유발계수 단위 (명/십억원)

제 5 절 개선방안 종합 및 단계별 로드맵

본 장에서는 저작권통계의 가공통계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제1절~제4절에서 도출한 분류체계 개선, 기초자료 및 산출절차 개선, 보조지표 확충 및 추가 고도화 방안을 종합하여 향후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분석 결과, 저작권산업의 빠른 산업구조 변화와 디지털 창작경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KSIC-KSCIC 기반 가공통계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는 체계적·단계적 개선 로드맵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1. 개선방안 종합

(1) 분류체계(KSCIC) 정비

현행 KSCIC은 신산업 반영이 미흡하고 KSIC와의 매핑 구조도 산업 현실과 괴리가 있어, 창작-제작-유통-플랫폼-소비 구조를 반영한 다층 분류체계로의 전환이 핵심 과제로 도출되었다. 웹툰·플랫폼·MCN·스트리밍 등 신규 산업군의 세분류 신설, 저작권 사용 기반 산업(저작권료 발생 산업)의 재정의, 소프트웨어·DB 분류의 내부 세분화 등이 필요하다.

(2) 기초자료 및 산출절차 개선

경제총조사·산업연관표·국민계정 등 기존 기초자료는 공표주기 시차가 크고 자료 구조 차이로 인해 비공표 연도 추정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기업통계등록부·전국사업체조사 등 매년 갱신되는 DB와의 연계, 플랫폼 거래·저작권료 DB 등 신규 행정자료 도입, 산업분류 개정 시 자동 매핑 업데이트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산출절차는 매출-부가가치율-고용 방식의 단순 구조를 유지하되, 자료 적용 순서를 표준화하고 비공표 연도 보간·보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산출 절차의 투명성과 반복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3) 보조지표 및 추가 고도화 지표 확충

국제사례(핀란드·캐나다 CSA, 미국 IIPA 등)와 비교하면 KCC의 저작권통계는 지표 구성이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기본지표 외에 다음과 같은 파생지표·대외경제지표·

과급효과 지표의 도입이 요구된다. 특히, 노동생산성, 성장률(CAGR) 등 산업 효율성·성장성 지표와 산업연관표 기반 생산·부가가치·고용 유발계수는 추가 자료조사 없이 기존 자료(부가가치, 고용 등)로 산출 가능한 항목이 많아, 정책 활용성 제고에 즉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단계별 로드맵

저작권통계의 현실적 여건과 정책수요를 고려할 때, 단기(1~2년), 중기(3~5년), 장기(5년 이상)로 구분한 단계적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표 3-4> 가공통계 품질개선 고도화 방안 단계별 로드맵

구분	추진단계	주요 추진내용	기대효과
단기	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CIC 개편 방향 설정 및 KSIC-KSCIC 매핑 점검 • 기업통계등록부·전국사업체조사와의 연계 검토 • 산출절차(보정·보간·부가가치율 적용 등) 표준화 및 문서화 • 노동생산성·성장성 등 즉시 산출 가능한 보조지표 도입 • 조사통계 기반 구축(모집단 정의·표본틀 설계) 및 시범조사 착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체계 유지하면서 품질·정합성 기반 확보 • 산업구조 변화 반영 준비
중기	3~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CIC 세분류 재정비 및 자동 매핑 시스템 시범 운영 • 플랫폼DB·저작권료DB 등 신규 행정자료 연계 체계 구축 • 수출입지표·유발계수 등 확장 지표 공표 • 핵심저작권산업 중심 부분 조사통계 평가 및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조사·행정자료가 결합된 혼합형 통계체계 구축 • 신산업·플랫폼 경제 반영성 강화
장기	5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통계 전환 가능 분야 확대(웹툰·음악·방송 등) • 플랫폼·창작자 기반 다층 분류체계 정착 • 대외경제·과급효과·플랫폼지표 통합한 저작권산업계정(CSA) 구축 검토 • WIPO 기준·국내 기준의 이중 트랙 체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도화된 국가 저작권통계 시스템 구축 • 국제비교력 및 산업정책 활용성 극대화

제 4 장 조사통계 전환 타당성 검토

제 1 절 현행 저작권통계에서의 조사 부록6

저작권통계는 기본적으로 행정자료 및 산업통계 등을 기반으로 재가공한 가공통계 형태로 산출되고 있다. 그러나 4개 산업 대분류 중 부분저작권산업¹⁰⁾에 해당하는 산업은 저작권이 생산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가 아니라 일부에 그치기 때문에, 해당 산업의 저작권 기여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부분저작권산업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저작권요소(copyright factor)¹¹⁾ 조사가 보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저작권요소 조사는 저작권 기반산업에서 부분적으로 저작권의 요소 즉 창작활동과 저작권 활용이 생산에 미치는 비중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부분저작권산업의 저작권 기여도를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의 대상은 부분저작권산업에 속하는 사업체이며, 장난감·게임용품 제조업, 건축·엔지니어링업, 출판 관련 업종, 인테리어 및 실내디자인업, 의류·신발 제조업, 귀금속·보석 관련 제조 및 유통업, 가구 및 가정용품 제조업 등 다양한 제조·유통 부문을 포함한다.

- 조사대상 : 부분저작권산업에 속하는 사업체
- 조사대상자 : 기업체 대표이사 또는 총무/관리 총괄부서 담당자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¹²⁾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 표본추출 : 지역별·기업규모별 구성비에 근거한 제곱근 비례할당추출
- 조사내용 : 사업체의 기본정보, 주요생산품, 저작권의 중요도, 저작권의 상용 수입 및 지출여부, 창조활동 수행 종업원 비율 등

※ 낮은 응답률 문제: 싱가포르의 경우, 저작권요소 조사에서 기업대상 서베이(N=2,887) 중 응답회신은 단 115건(3.9%)에 불과하였음

10) **부분저작권산업**: 식물, 의류, 귀금속 관련 제조업, 가구, 가정용 유리제품 및 도자기, 카펫, 장난감 및 게임, 건축 및 공학관련 서비스, 실내디자인, 박물관 등 다양한 산업

11) 저작권 요소는 **창조활동 수행 종업원의 비율**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

12) 미국 등의 저작권 산업 경제기여도 산출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핵심저작권 산업과 상호의존저작권산업은 저작권 요소를 1로 간주하고 있으며, 부분저작권 산업은 **조사(survey)를 통해 저작권 요소를 추정하여 사용하고 있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년도 부분저작권산업 요소비중조사」 참고)

제 2 절 조사통계 도입의 필요성과 목표

현행 저작권통계는 가공통계 방식에 기반하여 장기간의 시계열 유지와 산업 전체의 구조적 파악이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산업 구조 변화와 디지털 기반 창작활동 확대를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여러 제약이 존재한다. 특히 부분저작권산업의 저작권 기여도 비중은 산업별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체계에서는 오래된 요소비중 자료를 반복 사용하고 있어 현실적 산업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되었다. 아울러 KSCIC 분류의 세분화 미흡, 중분류 공표 한계, 1인 창작자 및 플랫폼 기반 창작활동의 통계 포착 어려움 등 현행 가공통계 방식의 구조적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 자문회의(FGI)에서는 현행 통계체계의 한계가 일관되게 제기되었으나 전 산업을 대상으로 한 전면 조사통계로의 전환은 예산·표본틀·시차·응답부담 등 측면에서 실효성이 낮고 일부 산업은 조사 자체가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자문위원들은 핵심저작권 또는 부분저작권 산업 중 실태조사가 가능한 산업군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조사 기능을 도입하되, 일부는 조사통계로, 일부는 가공통계 방식으로 병행하는 혼합형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업자등록번호 기반 사업체 단위로는 1인 창작자·프리랜서·플랫폼 창작자 등을 포괄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데이터처 기업통계등록부 및 KSIC 연계정보를 활용해 조사 가능 산업에 한해 별도의 표본틀을 구축하는 방향이 제안되었다. 더불어 저작권료, 라이선스 수입·수출 등 국제 비교가 가능한 항목을 조사문항에 포함해 통계의 정책적 활용성과 국제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다.

이상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면, 조사통계 도입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제기된다.

첫째, 디지털 전환과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기존 가공통계 방식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저작권 이용 실태와 창작활동 구조를 보완할 정교한 정보가 요구된다.

둘째, 부분저작권산업의 저작권 기여도 비중을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산업별 저작권 활동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조사통계 기반의 실측 자료가 필수적이다.

셋째, 국제 비교 및 WIPO 기준에 부합하는 통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조사 기반의 정량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조사통계 도입의 목표는 이러한 필요성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될 수 있다.

첫째, 핵심저작권 및 부분저작권산업의 저작권 기여도를 실제 산업 구조에 근접한 수준으로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통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저작권료·라이선스 수출입·창작자 노동구조 등 정책적 요구가 높은 항목을 조사함으로써 저작권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산업 육성 전략 마련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확보하는데 목표가 있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표본들을 정비하고 조사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가공통계와 조사통계가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는 혼합형 통계체계를 구축하고, 이후 조사통계 기반 전환 가능성을 준비하는 것이다.

다만 검토 결과, 현 시점에서는 통계체계를 전면적으로 조사통계로 전환하기보다, 광범위한 저작권 관련 산업과 다양한 창작자군을 포괄할 수 있는 모집단 정의와 표본들 구축 등 사전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산업 범위가 넓고 창작자 유형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전 산업을 대상으로 한 일괄적 조사통계 전환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우선 조사 가능성이 높은 핵심저작권 및 일부 부분저작권 산업을 중심으로 제한적·부분적인 조사 기능을 도입하여 실제 산업 실태와 저작권 활용 구조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을 통해 향후 모집단과 표본들이 보다 명확해질 경우, 조사통계의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 조사통계 도입의 선제조건 - 모집단 정의 및 포함범위

조사통계를 도입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조사대상이 되는 모집단(population)의 구체적 정의와 포함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다. 저작권산업은 창작물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다양한 산업과 주체가 관여하는 구조를 지니며, 특히 창작자·사업체·플랫폼·관리단체 등 여러 경제 주체가 동일 콘텐츠의 가치사슬에 중첩적으로 참여한다. 이 때문에 단일 기준으로 모집단을 구축하기 어렵고, 산업별로 상이한 저작권 활용 방식과 수익 구조를 고려한 체계적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

저작권산업의 매출은 단순한 저작권료(royalty)에 한정되지 않고, 콘텐츠 판매액, 광고·부가사업 수익, 라이선스 수입 등 저작물을 활용한 직·간접적 경제활동을 모두 포괄한다. 다만, 저작물 기반 경제활동의 ‘최종 산출’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도소매·중개 단계를 거치면서 동일한 금액이 반복 계산되는 중복 집계를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다. 저작권료 흐름은 소비자의 지불에서 시작하여 플랫폼·유통사·관리단체를 거쳐 창작자에게 배분되는 구조로 산업별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는 모집단의 기준을 설정할 때 산업적 가치사슬별 참여자 범위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따라서 모집단 정의는 WIPO의 핵심저작권·상호의존·부분저작권·저작권지원산업 분류체계를 기본 틀로 삼되, 국내 산업 구조와 저작권 이용 실태를 반영해 실사 가능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모두 고려하여 포함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첫째, 저작물 창작·제작·유통·중개를 통해 매출 또는 종사자 규모가 확인되는 사업체는 원칙적으로 모집단에 포함한다. 둘째, 단순 재판매업이나 저작권성과 무관한 영업 활동 등 저작권 기여도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셋째, 1인 창작자·프리랜서·플랫폼 기반 창작활동 등 비사업체 단위의 활동은 현행 행정자료와 통계조사 체계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우므로, 플랫폼 사업자 자료·협회 및 신탁단체 등록정보 등을 활용한 단계적 포함 방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은 저작권산업의 모집단 구축이 단순히 “사업체 목록”을 나열하는 작업이 아니라, 산업별 가치사슬 구조, 저작권료 징수·정산 방식, 플랫폼·유통체계, 저작물 기반 매출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모집단 정의는 조사통계가 실제로 산출 가능한 범위와 정확도를 결정짓는 핵심 선제조건이다.

□ 모집단

현행 저작권통계는 조사통계가 아닌 가공통계 방식으로 작성되므로, 전통적 의미의 모집단(population)이나 표본틀(sample frame)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향후 조사통계 기반의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참조적 개념으로서 모집단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목표모집단’ 과 ‘작성모집단’ 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 목표모집단

목표모집단은 국내에서 저작물의 창작·제작·복제·유통·보호 등 저작권 관련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체 및 산업 전체로 정의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산업이 포함된다.

- 출판업, 음악·영상 제작업, 방송업
-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기반 창작 산업
- 소프트웨어·컴퓨터 프로그래밍·데이터산업
- 디자인·광고·캐릭터·게임·웹툰 등

부분저작권산업의 경우에는 산업 전체가 아닌 저작권요소(copyright factor) 를 적용하여 산출되는 저작권 관련 경제활동 비중만 목표모집단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 작성모집단(실제 산출에 활용되는 기초자료 범위)

저작권통계의 산출에 활용되는 기초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가공통계 방식에서 사실상 작성모집단 역할을 수행한다.

- 산업연관표(한국은행)
- 국민계정 및 경제총조사·사업체조사(국가데이터처)
- 국제수지 통계(한국은행)
- 행정DB(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보호원, 신탁단체 등)

이들 기초자료가 보유하고 있는 산업·사업체 정보가 실제 산출 가능한 범위를 결정하며, 유효 정보가 존재하는 산업을 중심으로 저작권산업 규모가 산출된다.

<표 4-1> 저작권통계 작성대상(모집단)

구분	정의	포함 범위	비고
목표 대상	국내에서 저작권 관련 경제활동(창작·제작·복제·유통·보호 등)을 수행하는 사업체 및 산업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판 음악·영상·방송 플랫폼 기반 디지털콘텐츠(웹툰·게임 등) 소프트웨어·프로그래밍·데이터 산업 디자인·광고·캐릭터 등 	부분저작권산업은 저작권 요소 적용 후의 저작권 관련 비중만포함
작성 대상	가공통계 산출에 실제 사용되는 기초자료가 보유한 산업·사업체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연관표(한국은행) 국민계정·경제총조사·사업체조사(국가데이터처) 국제수지(IP royalties) 행정자료(저작권위원회·보호원·신탁단체 등) 	전통적 의미의 표본들은 없으며, 기초자료가 사실상 모집단 역할수행

즉 목표모집단은 “저작권 관련 경제활동 전체” 라는 이론적·개념적 범위를 나타내고, 작성모집단은 “기초자료가 실제로 보유한 범위” 라는 현실적·수량적 범위를 의미한다. 두 모집단 사이의 간극은 현행 저작권통계의 구조적 한계이자, 향후 조사통계 기반 전환을 위해 우선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이다.

제 4 절 조사통계 도입의 선제조건 - 표본틀 구축

조사통계 도입의 실효성은 표본틀(sample frame)의 구축 여부에 의해 상당 부분 결정된다. 저작권산업은 다양한 산업과 창작자군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전통적 사업체 기반 표본틀 만으로는 충분한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조사대상 산업별 포함·제외 기준을 정립하고, 플랫폼 기반 창작자를 포함하기 위한 대안적 접근을 제시하며, 향후 표본추출 설계 시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제안한다.

1. 표본틀 구축의 기본 방향

표본틀 구축의 기본 방향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표본틀의 1차 기반은 국가데이터처 기업통계등록부(BR)로 설정한다. BR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최신 사업체 정보를 제공하므로, 출판·음악·영상·게임·디자인·광고 등 핵심저작권산업 전반에서 기본적인 표본틀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BR만으로는 공연시설, 예술단체, CP(콘텐츠공급업체), OTT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회원사 등 저작권 기반 활동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경제주체를 완전히 포착하기 어렵다. 따라서 동일 KSIC 코드 내에서도 실제로 저작권 기반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체를 선별하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둘째, 사업자등록이 없는 1인 창작자·프리랜서·플랫폼 기반 창작자는 별도의 보완 표본틀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 신탁관리단체, 각종 협·단체, 공연시설 허가정보, 영화·방송 관련 등록 명부 등 외부 데이터 연계를 단계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음악·웹툰·OTT·공연·소프트웨어 등 플랫폼·라이선스 기반 산업에서는 이러한 보완자료가 필수적이며, 휴·폐업 사업체나 비전형적 조직(협동조합·재단법인 등)도 누락 없이 포함하도록 정비해야 한다.

셋째, 조사대상 산업은 단기적으로 조사 가능성과 표본틀 확보 용이성이 높은 핵심저작권 및 일부 부분저작권 산업을 우선 적용하고, 중·장기적으로 관련 데이터 인프라 확충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접근이 합리적이다.

2. 산업별 포함·제외 기준

조사통계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업별 포함·제외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1) 포함 기준(Include)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표본틀에 포함한다.

- ① 저작물의 창작·제작·복제·유통·중개를 통해 직접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예: 출판사, 음반·영상 제작사, 웹툰 CP, 방송채널사업자, 게임 개발사
- ② 저작물을 기반으로 광고·플랫폼·구독료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예: 웹소설·웹툰 플랫폼, OTT 플랫폼(AVOD/SVOD),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 ③ 저작물 활용을 전제로 부가사업·라이선스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예: 캐릭터 산업, IP 상품화 기업, 공연기획사, 포맷 판매업
- ④ 저작권 관리·정산·중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예: 신탁관리단체, 중개단체, 문예·음악저작권 관리조직

(2) 제외 기준(Exclude)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표본틀에서 제외한다.

- ① 저작물과 무관한 단순 재판매·물류·유통업
예: 도서 도매상(단순 재유통업), 음반·굿즈 일반 소매업
- ② 제조업·서비스업 중 저작권 요소가 부수적·미미한 경우
예: 일반 인쇄업, 일반 제조업에서 캐릭터 부착 상품(저작권요소는 별도 계상 필요)
- ③ 저작권적 기여 없이 영업 활동만 제공하는 기업
예: 광고대행업(순수 매체 대행) → 단, 콘텐츠 제작을 수행하는 광고 제작사는 포함
- ④ 법적 실체는 있으나 실제 창작·제작 활동이 확인되지 않는 휴·폐업 상태 사업체

3. 플랫폼 기반 창작자 포함 방안

사업자등록이 없는 창작자 집단(1인 창작자·프리랜서·플랫폼 기반 창작자)을 표본들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별도 전략이 필요하다. 플랫폼 기반 창작자(웹툰작가, 유튜브 크리에이터, 음악 창작자 등)는 기업·협회·플랫폼 단위의 등록정보로 포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 신탁단체 및 협·단체의 등록 명부를 활용하는 방식이 실효적이다. 단기적으로는 매출 규모 또는 활동량 기준 상위 창작자를 중심으로 최소 표본들을 구성하고, 중기적으로는 플랫폼 간 중복 계정을 통합하여 카테고리별(웹툰, 음악, 영상 등) 정식 표본들을 구축하며, 장기적으로는 창작자 고유 식별체계(창작자 통합 ID 등)를 기반으로 한 전수성 표본들 구축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출판·문학 분야는 BR과 출판사 등록부, 정기간행물 지자체 등록을 연계하고, 음악·공연 분야는 신탁관리단체 명부 및 공연시설 허가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이 적합하다. 영상·영화·OTT 분야는 영화관 등록·허가 명부와 영상제작사·배급사 정보가 필요하며, 소프트웨어 분야는 게임물관리·앱마켓 사업자 명부, 인터넷진흥원·SW협회 명부가 표본들 구축의 주요 기반이 된다.

4. 표본설계

표본추출 설계 단계에서는 저작권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산업 간 이질성이 큰 만큼 출판·음악·방송·게임·디자인 산업을 중심으로 층화표본추출(stratified sampling)을 적용하고, 동일 기업이 여러 KSIC 코드를 보유하거나 플랫폼·CP·제작사가 혼재하는 경우 중복 여부를 사전에 검증해야 한다.

산업 내 영향력이 큰 대규모 플랫폼·방송사·제작사는 전수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소기업체는 확률추출 방식으로 조사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조사문항 설계에서는 동일 매출이 유통·정산 과정에서 반복 계산되는 중복 집계를 방지하기 위해 총매출과 저작물 기반 매출을 구분하여 조사해야 한다. 부분저작권산업은 저작권요소를 반영하기 위한 ‘저작물 기반 매출 비중’ 문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매출 포착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결제 기반 매출 또는 국내 이용자 지출액을 활용한 추정 문항도 필요하다.

5. 종합

표본틀 구축은 저작권산업 조사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결정하는 핵심 기초 작업이다. 이 과정은 단순한 사업체 목록 작성이 아니라 산업 구조, 가치사슬, 저작물 기반 매출의 성격, 플랫폼 활동 특성 등을 다면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복합적 절차이다. 단기적으로는 기업통계등록부 기반의 사업체 중심 표본틀을 우선 정립하고, 중기적으로는 신탁단체·지자체·플랫폼 등 외부 데이터를 연계해 범위를 확장하며, 장기적으로는 플랫폼 기반 창작활동까지 체계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조사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을 통해 목표모집단과 작성모집단 간의 간극을 해소함으로써, 저작권산업의 실제 시장 규모와 경제적 기여도를 실측 기반으로 파악할 수 있는 조사통계 전환의 기반이 구축될 것이다.

제 5 절 조사통계 도입의 선제조건 - 조사통계의 한계점 유의

조사통계는 산업 현장의 정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도입과 운영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과 유지 부담을 수반한다. 특히 조사 영역이 확대될수록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조사통계를 주요 산출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정기성·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KCC가 이러한 체계를 자체적으로 장기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응답의 강제성이 없는 조사의 특성상 무응답률이 높게 나타나기 쉽고, 특히 규모가 큰 기업의 무응답은 통계의 대표성과 정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권태연, 2021). 조사통계의 대표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응답률 관리와 응답 참여 유도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규모가 큰 기업의 응답 확보는 산업 전체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표본설계와 조사운영 단계에서 전략적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리체계의 구축은 조사통계 도입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하며, 장기적으로는 조사통계 체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조사통계가 비정기적 내부 참고자료가 아니라 정기적 공표통계의 형태로 운영될 경우, 산출된 값에 대한 책임성·투명성·재현가능성 요구가 높아지기 때문에 유지가능성, 비용 구조, 추정에 따른 불확실성 관리 등 사전 검토가 더욱 중요해진다. 특히 일부 부문이 아닌 저

저작권산업 전체 영역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수록, 이러한 부담과 한계는 더욱 크게 증가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제 6 절 조사통계 도입 시나리오

저작권산업의 조사통계 도입은 산업 구조의 복잡성, 모집단 정의의 어려움, 플랫폼 기반 창작활동의 확대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전 산업을 대상으로 한 전면적 조사 체계로 대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현행 가공통계는 시계열 안정성, 지표 간 비교가능성, 산업 규모 파악의 효율성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유지·활용되어야 하는 통계적 기반이다. 따라서 조사통계는 향후 저작권통계 체계를 정밀화하는 핵심 기반으로 기능할 필요가 있으나, 초기 단계에서는 가공통계를 병행하여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혼합형 접근이 요구된다. 가공통계는 거시적 규모 파악을 위한 기초 자료로 유지하되, 세부 구조 파악·신산업 반영·정책 대응력 제고 등은 조사통계를 통해 보완·확장하는 방향으로 체계를 재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작권산업 전체에 대한 조사 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대표성 확보를 위한 작성 범위 설정, 모집단 정의, 표본틀 구축 등 기초 체계의 정교화가 필수적이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단계적 접근이 요구되는 과제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가공통계와 조사통계의 병행을 전제로 3단계 조사통계 도입 시나리오를 제안한다.

우선 1단계(단기)는 ‘조사통계 기반구축 및 부분 도입’ 시나리오로, 조사통계 도입 기반을 즉시 구축하고, 핵심 저작권산업에 대한 시범조사를 착수하여 조사기반 통계체계로의 전환을 본격 시작한다. 또한 핵심저작권산업 중 표본틀이 비교적 명확하고 조사 가능성이 큰 산업군부터 조사통계를 부분 도입 및 적용하는 방식이다. 출판, 음악, 웹툰, 일부 방송 분야 등 기존 행정자료 또는 플랫폼 정보로 사업체·창작자 모집단을 비교적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 단계는 현가공통계 체계하에서 조사통계 도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향후 조사통계로 전환에 앞서 부분 적용을 통해 확대가능성을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2단계(중기)는 ‘산업군 확장형’ 시나리오로, 조사통계 적용 범위를 핵심저작권산업 전반과 일부 부분저작권산업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사업체조사와 창작자조사를 혼합 운영하고, 플랫폼·신탁단체·협회 등 외부 데이터를 연계하여 표본틀의 포괄성과 대표성을 강화한다.

조사통계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실무적 요인(표본틀 구축, 응답률 관리 등)은 운영 과정에서 해결 가능한 관리 요소이며, 체계적 조사 기반 구축을 통해 통계의 정확성과 대표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단계(장기)는 ‘혼합 기반의 안정적 병행체계 구축’ 시나리오로, 현행 가공통계를 시계열 분석과 산업구조 파악의 기본 틀로 유지하면서, 조사통계가 산업 규모·부가가치·고용구조 등 특정 영역에서 실측 기반의 정교한 정보를 제공하는 상호보완적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창작자 통합 식별체계 구축, 플랫폼 정보의 정례 공유, 산업분류 체계 정교화 등 제도적·기술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며, 중장기적 데이터 인프라와 조사역량 확보가 필수적이다.

결론적으로, 저작권산업 통계체계는 가공통계를 중심축으로 유지하되 조사통계를 단계적으로 병행·도입하는 혼합형 접근이 가장 현실적이며, 이를 통해 통계 안정성과 비교가능성을 보존하면서도 실측 기반 자료를 점진적으로 보완하는 균형 있는 통계체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산업에서 모집단 정의나 표본틀 구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지만, 이는 조사통계 도입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구축해야 할 핵심 인프라로서 단계적 접근을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것이다. 또한 조사비용 및 응답부담은 온라인 조사 확대, 행정자료 활용, 플랫폼 정보 연계 등을 통해 실효적으로 완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조사통계 도입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조사통계의 적용 범위가 확대될수록 대표성·책임성·재현가능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커지므로, 유지 가능성, 비용 구조, 표본틀의 적정성, 추정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관리 등 사전 검토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저작권통계는 한국 저작권산업의 경제적 기여도를 측정하고 정책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핵심 통계이나, 현재는 산업연관표·국민계정·행정통계 등 외부 통계와 행정자료를 가공하여 산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가공통계 방식은 국제비교 가능성과 계산의 일관성이라는 장점을 지니지만, 분류체계의 한계, 기초자료 시차, 신산업 반영 부족, 저작권요소의 노후화 등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산업 변화 속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가공통계의 품질을 실질적으로 고도화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조사통계 기반의 혼합형 체계로 발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조사통계 도입은 신유형 창작경제·플랫폼 산업 구조를 반영하기 위한 필수 과제로, 향후 저작권산업 통계체계의 중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가공통계 체계는 외부 통계와 행정자료를 조합하여 산출되는 구조이므로, 통계의 정확성·대표성·시의성은 기초자료에 대한 의존도가 결정짓는다. 따라서 저작권통계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KSIC-KSCIC 간 연계성 강화, 신유형 산업을 수용하는 분류체계 개편, 산업연관표 시차 보완, 공표주기 차이로 인한 시계열 단절 최소화 등 기초자료 정합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가공통계 방식이 갖는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되, 활용 가능 자료원 최대화와 산출 절차의 표준화·문서화를 통해 품질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초자료 및 산출절차 검토 결과 저작권요소비중의 노후화, 비공표 연도 추정 방식의 불안정성, 디지털·플랫폼 기반 산업의 누락 등이 주요 개선 과제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요소비중의 정기적 갱신, 디지털 저작물 구조 변화 반영, 플랫폼·글로벌 매출 파악을 위한 대체자료 도입, 국가승인통계 절차와 연계된 산출 매뉴얼 정립 등 체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산업 규모 산출의 투명성을 위해 지표별 산출 논리와 가정값을 명확히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분석 결과 공표지표 확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확인되었다. 현재의 총생산·부가가치 중심 지표 외에도 노동생산성, 기업특성(규모별·유형별), 고용·일자리, 수출입, 파급효과, 플랫폼 기반 창작자·콘텐츠 시장지표 등 다층적 보조지표를 도입할 경

우 정책 활용성과 산업 진단의 정밀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다. 이는 유사통계에서 이미 구현되고 있는 방식으로, 저작권통계 역시 현실을 반영한 지표 확장 전략이 요구된다.

넷째, 조사통계 전환 검토 결과 전면적인 조사통계 방식 전환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산업의 이질성·다층적 구조, 복잡한 유통경로, 1인 창작자 및 플랫폼 기반 경제활동 포착의 어려움, 표본틀 부재 등이 그 이유이다. 다만, 핵심 분야 실태조사, 플랫폼 기반 시장에 대한 특화조사, 기업통계등록부를 활용한 사업체 기반 표본틀 구축은 가능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가공통계·행정DB·조사통계를 결합한 혼합형 작성체계가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판단되었다.

마지막으로, 단계별 발전 전략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분류체계 정비와 산출 절차의 체계화, 보조지표 확충, 기초자료 연계 강화가 우선 과제이다. 조사가능성이 높은 핵심 산업군을 중심으로 한 실태조사 도입, 플랫폼 매출 및 글로벌 사업자 데이터 확보, 기초자료 갱신 주기와 공표체계의 조화가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확립된 표본틀을 기반으로 저작권산업 전반에 대한 조사통계 전환을 모색하며, 국가승인통계로서의 지속가능성과 국제적 정합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가공통계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조사통계 기반으로의 점진적 전환 가능성을 탐색함으로써 저작권통계가 산업 현실을 반영하고 정책적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향후 한국저작권위원회, 국가데이터처,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자료 접근성·연계성·표준화를 강화하고, 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지표 확장 및 조사 기반 구축을 병행한다면 저작권통계는 디지털·플랫폼 시대의 콘텐츠 산업을 정확히 포착하는 국가 핵심 통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3) 방송산업실태조사 통계정보보고서
- 권태연. (2021). 재무 및 건강 설문자료에서 결측치의 논리적 한계정보를 고려한 회귀모형 기반 베이 지안 다중대체 방법의 적용.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3(2), 939-951.
- 김영원, 류제복, 박진우, 홍기학(2019). 「표본조사의 이해와 활용」, 교우사
- 류제복, 홍기학, 이기성, 손창균, 김선웅 (2021) 「표본조사」, 자유아카데미
- 문화체육관광부(2023) 콘텐츠산업조사 통계정보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2023) 광고산업조사 통계정보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2023) 예술인실태조사 통계정보보고서
- 방송통신위원회(2023) 스마트미디어산업실태조사 통계정보보고서
- 방송통신위원회(2025)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산업 통계정보보고서
- 방송통신위원회(2025)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산업 실태조사 지침서
- 방송통신위원회(2025)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산업 조사표
- 산업통상자원부(2023) 디자인산업통계 통계정보보고서
- 샘플링아카데미(2003) 「표본조사입문」, 샘플링아카데미
- 안길효, 이상규(2018) 우리나라 저작권산업의 경제적 중요성 및 저작권료 수준에 관한 연구. 계간 저작권, 2018년 봄호, 29-54.
- 이상호, & 신정훈(2017) 경제변화에 대한 저작권산업의 미래예측과 발전과제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 산업학회논문지, 11(4), 95-107.
- 국가데이터처(2022). 정보통신기술산업통계 통계정보보고서
- 국가데이터처(2022). 산업연관표 통계정보보고서
- 국가데이터처(2022). 국민계정 통계정보보고서
- 국가데이터처(2022) 기술무역통계 통계설명자료
- 국가데이터처(2022) 정보통신기술산업통계 통계설명자료
- 국가데이터처(2022) ICT수출입통계 통계설명자료
- 국가데이터처(2022) 산업연관표 통계설명자료
- 국가데이터처(2022) 국민계정 통계설명자료
- 국가데이터처(2022) 국제수지통계 통계설명자료
- 국가데이터처(2022) 문화체육관광산업통계 통계설명자료
- 국가데이터처(2023) 저작권통계 통계설명자료

- 국가데이터처(2023) 콘텐츠산업조사 통계설명자료
- 국가데이터처(2023) 광고산업조사 통계설명자료
- 국가데이터처(2023) 예술인실태조사 통계설명자료
- 국가데이터처(2023) 신문·잡지산업실태조사 통계설명자료
- 국가데이터처(2023) 디자인산업통계 통계설명자료
- 국가데이터처(2023) 스마트미디어산업실태조사 통계설명자료
- 국가데이터처(2023) 방송산업실태조사 통계설명자료
- 국가데이터처(2025) 디지털크리에이티브미디어산업 실태조사 통계설명자료
- 한국언론진흥재단(2023) 신문·잡지산업실태조사 통계정보보고서
- 한국은행(2022) 기술무역통계 통계정보보고서
- 한국은행(2022) ICT수출입통계 통계정보보고서
- 한국은행(2022) 국제수지통계 통계정보보고서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2) 문화체육관광산업통계 보고서
- 한국저작권위원회(2024) 『한국 저작권산업의 경제 기여도 조사』
- 한국저작권위원회(2024) 『저작권 통계 제13권 2호 통권 제15호』
- 한국저작권위원회(2023) 『한국 저작권산업의 경제기여도 산출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 한국저작권위원회(2020) 『저작권 산업 경제기여도 산출 매뉴얼 개정본』
- Statistics Finland. (2023). Culture Satellite Account 2022. Helsinki: Statistics Finland.
- Statistics Canada. (2023). National culture indicators, by domain and sub-domain (Table: 36-10-0652-01). Ottawa: Statistics Canada.
-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 (IIPA), “Copyright Industries in the U.S. Economy: The 2024 Report.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2009). Balance of Payments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Manual, Sixth Edition (BPM6). Washington, D.C.: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SBN 978-1-58906-812-4.
- Bureau of Economic Analysis (BEA). (2018). Defining and measuring the digital economy. U.S. Department of Commerce.
- WIPO & Korea Copyright Commission(2012), The Economic Contribution of Copyright-Based Industries in the Republic of Korea, WIPO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2015), Guide on Surveying the Economic Contribution of Copyright industries, WIPO

부록1 저작권통계 설명자료(2023)

저작권통계(2023)

통계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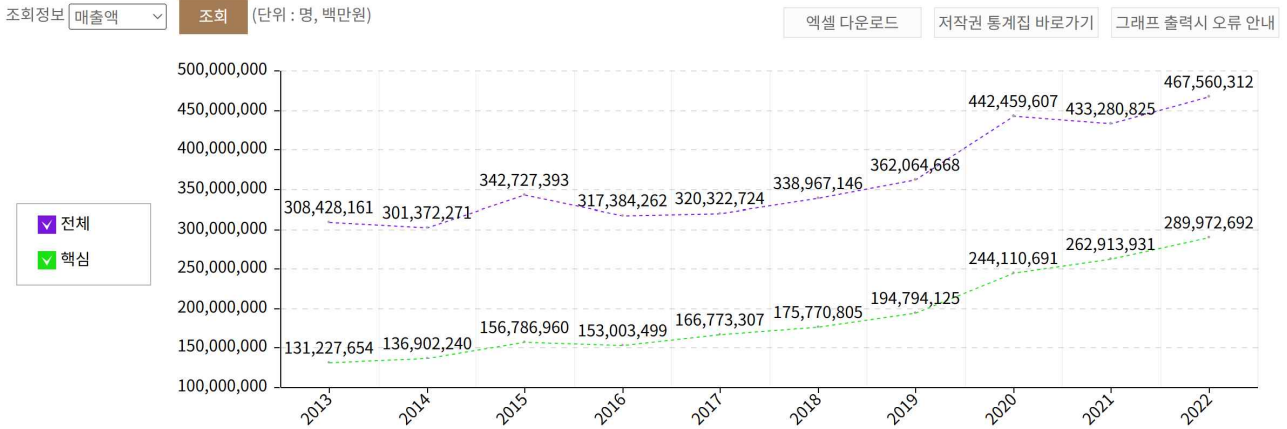
작성기관 및 부서(전화번호)	
작성기관 및 부서(전화번호)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산업통계팀 (☎ 055-792-0095)
작성목적 및 활용	
작성목적	저작권 관련 산업 동향을 살펴보고, 연구 분석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저작권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통계(활용)분야 · 실태	문화.여가
작성유형	
작성유형	가공통계
작성대상	
작성대상 지역	전국
적용분류	(주) 산업/세분류이하
작성항목	
작성항목	창작분야 19개 항목, 제작·유통 21개 항목, 보호 분야 12개 항목, 산업 분야 10개 항목, 기타 분야 11개 항목 등
공표	
공표시기	작성기준 년도 익년 11월
공표범위	전국
공표방법 및 URL	전산망(인터넷), 간행물 저작권 통계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the-copyright-statistics/list.do
작성기준	
작성대상기간 및 작성기준시점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작성기간	2월 ~ 11월
작성주기	1년
계속여부	계속통계
자료이용시 유의사항	
자료이용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통계항목은 외부 통계자료의 통계 항목과 그 명칭이 동일 혹은 유사할 수 있으며 통계 작성기관, 작성주기, 작성형태, 가공형태 등의 차이로 인해 그 수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통계표 내의 수치가 반올림되어 있는 경우, 세부항목의 합이 전체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요 용어해설	
저작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편집,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있음
저작인접물	저작물과는 별도로 저작물의 구현, 제작 및 송신으로서 실연, 음반, 방송이 있음
저작자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자연인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법인 등(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을 저작자로 의제하고 있음. 법인 등이 저작자인 저작물을 '업무상 저작물'이라 함
저작권	저작자의 권리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누어짐. 저작인격권은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고,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임. 저작권은 배타적인 권리로서 권리자만이 그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
저작인접권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는데 있어서 자본 투자 및 창의적인 기여를 한 자에게 부여하는 권리
저작권 등록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의 권리 및 그러한 권리 등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 저작인접권등록부 등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
저작권 신탁관리업	저작권법 제2조 제26호에 의거하여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 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
대리중개업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 행위를 하는 업
저작권 침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저작권산업	창작물 및 보호대상물(소설, 시, 음악, 미술, 지도, 설계도안, 영화, 소프트웨어 등)의 창작, 생산, 공연, 방송, 전시 또는 도소매 활동을 영위하는 산업과 그 저작권이 그 산업의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
핵심 저작권산업	작품 및 기타 보호대상물의 창작, 생산, 제조, 공연, 방송, 통신 및 전시, 혹은 유통 및 판매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산업
상호의존 저작권산업	그 기능이 전적으로 혹은 주로 작품 및 기타 보호대상물의 창조생산 및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기의 생산, 제조, 판매에 종사하는 산업
부분 저작권산업	일부의 활동이 작품 및 기타 보호대상물과 관련되어 있는 산업으로서 작품 및 기타 보호대상물의 창조, 생산, 제조, 공연, 방송, 통신, 전시 혹은 유통 및 판매에 관여하는 산업
저작권 지원산업	활동의 일부분이 작품 및 기타 보호대상물의 방송, 통신, 판매 및 유통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그 활동이 핵심 저작권산업에 포함되지 않는 산업
저작권산업의 경제기여도	국내 저작권산업을 매출액, 부가가치, 고용 등의 측면에서 그 규모를 산출하고 전체 저작권 산업의 경제규모가 국내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공유저작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로서 저작권 말료, 기증, 자유이용허락저작물, 공공기관이 창작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

만료저작물	저작자 사후 70년이 지난 저작물로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
기증저작물	저작권자가 국가에 권리를 기증하여 저작재산권 등을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저작물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일정한 조건하에 CCL 표시 등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를 부착한 저작물
소프트웨어 임치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사업의 산출물인 프로그램 및 기술자료 등을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에 맡겨 두었다가 저작권자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유지, 보수를 계속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를 사용 기업에게 교부해 줌으로써 저작권자의 폐업, 파산 등의 경우에도 사용권자가 안정적으로 당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법정허락	저작권법 제50조에 의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특별한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분쟁조정	법조계, 학계 그리고 산업계를 대표하는 1~3인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부의 조력을 통하여 당사자간 원만한 화해를 유도하는 ADR 제도 중 하나로서 신속, 저렴하며, 비공개로 진행되어 당사자의 명예와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수 있는 민주적이고 간편한 분쟁해결 제도
저작물 감정	저작권법 제119조에 의거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여 그 침해여부에 대한 전문가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검찰 및 경찰 등) 등 의뢰를 통하여 저작물의 유사여부 등을 판단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는 제도
저작권 인증	저작권법 제56조에 의거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 등을 위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제도로 권리에 대한 인증(권리인증)과 권리자로부터 받은 이용허락에 대한 인증(이용허락인증)으로 구분함
기초자료	
기초자료 수집 및 자료명	교육통계연보, 경제총조사, 광업제조업조사, 서비스업조사,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운수업조사, 도소매업조사 등
작성연혁	
작성연혁	2017년 저작권 통계 국가승인통계로 승인(승인번호 제443001호)
작성체계	
작성체계	자체조사(내부자료 조사, 외부 기관의 협조 및 자료 수집)
승인내역	
승인번호	443001
승인일자	2017-11-28
통계종류	일반통계
참고자료	
국제기구제출 여부 및 국제기구명	미제출

부록2 저작권통계 공표자료 시계열(2022-2025)

- 산업(전체/핵심)별 매출액(명목) 현황



- 산업(전체/핵심)별 부가가치(명목) 현황



- 산업(전체/핵심)별 고용자수 현황



부록3 유사 가공통계 작성현황 상세

(1) 기술무역통계(2022)

- 작성대상: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현황(기술수출/도입), 기술무역규모, 기술무역수지, 기술무역수지비 현황
- 기초자료: 한국은행 외환거래 자료 및 기술도입대가지급상황월보 자료
 - ↳ 기술수출 통계는 기업부담완화 및 통계 신뢰성 확보를 위해 조사통계에서 가공통계로 변경·승인(2015년)
 - ↳ 한국은행 전산망을 활용하여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제공받음. 전산화된 한국은행 DB를 제공받아 통계 집계 정확성 및 신속성, 신뢰성 높음
 - ↳ 산업분류는 표준산업분류(KSIC), 기술분류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체계 적용 (과학기술법 제27조 근거)
- 기준시점: 전년도(2022년) 1~12월까지 발생한 기술수출 및 도입실적
- 자료수집시점: 익년도(2023년) 4~5월경 한국은행으로부터 12월말 기준값 제공받음
- 공표시점: 익년도(2023년) 12월말¹³⁾ 확정치 발표 (2023년 통계결과는 공표시점 미정)
- 자료수집 과정 및 방법
 - 자료수집을 위한 법적장치를 마련하여 별도의 협의단계 없이 매년 자료를 제공하고있으며, 자료 수집이 용이함
 - 한국은행에서 국내의 수출입 거래실적이 있는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있으며, 기술무역통계를 위해 해당 자료를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제공
 - 자료 수집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2

제26조의2(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분석)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무역통계에 관한 조사·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은 「외환거래법」 제21조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1. 4. 20.>

13) 각 통계 분류를 위한 통계양이 방대하고 분석과정이 복잡하여, 통계의정확성을 확보하면서 통계 작성기간을 단축하기는 어려움

(2) 정보통신기술산업통계(2022)

- 작성항목 : ICT 제조업 및 서비스업 사업체수, 종사자수, 급여액, 출하액/매출액, 부가가치, 출하액 규모별 사업체수/종사자수,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수/종사자수 등
- 기초자료¹⁴⁾: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조사(전수조사), 서비스업조사(표본조사), 도소매업조사(전수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실태조사(전수조사),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시스템 통해 로데이터 원활히 확보됨
- 작성대상기간 및 기준시점: 2021.1.1.~2021.12.31.까지의 실적, 2021.12.31.기준
- 자료수집일정: 4~6월 자료수집 및 검수, 7월 자료 가공 및 보고서 작성
- 공표시점¹⁵⁾: 8월 통계보고서 발간 및 KOSIS 전송(2023.8.31.공표)
- 작성방법: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조사, 서비스업조사, 전국사업체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실태조사 등의 조사 결과를 가공, 정보통신기술산업분류(국가데이터처 특수분류) 기준으로 작성
- 자료수집 과정 및 방법
 - 국가데이터처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통해 자료 신청 및 수집, ICT실태조사 공표일정에 맞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요청, 해외 주요국 통계 수집(OECD STAN)
 - 특수산업 분류인 정보통신기술산업 범위로 재가공 후 주요 항목에 대한 가공 및 종사자 규모별, 매출액 규모별 통계 가공

14) 자료의 포괄성: 국내 정보통신기술산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포함하기 위해, 수집자료의 포괄범위를 감안하여 분야별로 다양한 자료를 활용 (단, ICT제조업 부문은 조사대상이 종사자수 10인 이상 사업체, ICT서비스업 부문은 종사자수 1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기준 불일치는 자료의 한계점)

15) 통계작성 기준시점으로부터 결과값 및 로우데이터 제공시점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시의성은 다소 떨어짐(통계작성 기준년도 익익년 8월 공표)

(3) ICT수출입통계(2024)

- 포괄범위 및 작성대상: 국내 통관 기준 모든 주체(기업, 개인 등) ① ICT 산업 수출입 · 수지 동향, ② 국가별 · 지역별 ICT 산업 수출입 · 수지 동향, ③ 대기업/중소 · 중견 기업별 ICT 상품 수출 동향
- 기초자료¹⁶⁾: 우리나라 수출입 신고 자료(ICT 상세품목 수출입 통계 DB)
 - ↳ ICT시장 및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ICT 통합 분류체계(품목기준) 마련, OECD 및 한국표준산업(KSIC) 분류, ICT 통계 간 비교 · 연계표 확보
- 대상기간 및 작성주기: 매월
- 작성기간: 익월 초
- 작성방법: 한국무역통계진흥원(관세청 무역통계 교부기관)으로부터 수출입 데이터를 받아, ICT통합분류체계에 근거하여 분류, 가공 및 분석하여 산출
- 자료수집 과정 및 방법
 - ICT 수출입 시스템 구축을 통해 추계 및 가공 등 모든 과정이 전산화되어 이루어지며, 전산화된 통계를 추출 · 분석하여 ICT 수출입 실적/금액 발표
 - HSK가 부여되지 않은 신규 품목(시스템 반도체 등 신규 유망 품목) 통계에 대해 기획 - 산출 - 검증 - DB 검증 추진
 - 자료 수집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6조(통계의 작성) 및 제22조(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등)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1조(통계의 작성 · 관리) 및 제44조(권한의 위임 · 위탁)
 - 통계법 제15조(통계작성기관)와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제18조(승인통계 작성) 등에 따라 통계작성기관 승인
 - 원활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한국무역통계진흥원(한국관세무역개발원)과 ICT 산업수출입 통계 관련 교류 및 협력에 관한 협정(MoU) 체결 후 현재까지 원활히 진행 중

16) 수집가능 자료의 포괄성: 수출입 신고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로 전산화되어 통계 생성을 위한 데이터의 반입, 생성, 결과 출력 등 모든 과정은 전산화, DB화되어 있어 통계 집계 정확성 및 신속성, 신뢰성이 높음

- 기초자료의 통계적 타당성: 관세관세.통계통합품목 분류표(HSK) 개정은 전세계 공통HS6단위 기준 세계관세기구(WCO) 개정안 수용하고 있으며, 관계 부처 건의(신규 품목 생성) 등 국내 개정 수요와 그간 운용상 제기된 개선사항(교역량 감소로 인한 품목 삭제) 등을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에서 개정

(4) 산업연관표(2022)

- 포괄범위 및 작성대상: 통계의 포괄범위는 일정기간 동안 국민경제 내에서의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대상으로 함

- 기초자료: 국가데이터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교육부 등 다양한 부처 및 기관 DB

자료명	작성주기	작성대상(기관)	작성형태	입수시기
경제총조사	5년	통계청	조사	익년 7월
물수입조사	연간	통계청	조사	익년 12월
도소매업조사	연간	통계청	조사	익년 1월
서비스업조사	연간	통계청	조사	익년 1월
ICT 실태조사	연간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조사	익년 4월
방송산업실태조사	연간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익년 11월
국제수지통계	월간	한국은행	기공	익년 12월(전년도 확정치)
매출현황조사 (일합성신비율조사)	연간	서비스업 표본업체	조사	익년 하반기
경비내역조사	연간(매 5년)	서비스업 표본업체	조사	익년 9월-익년 3월
유통현황조사	연간(매 5년)	유통업 표본업체	조사	익년 2-3분기
금융기관 재무현황 보고서 (금감원, 한국은행)	분기	금융기관	보고	익년 12월
금융기관 자산 부채 만기구조현황	분기	금융기관	보고	익년 12월
연구개발활동조사 보고서	연간	한국과학기술기획연구원	조사	익년 12월
인구주택총조사	연간(매 5년)	통계청	조사	익년 5월
대부업실태조사	분기	금융감독원	조사	익년 12월
보험통계연감	연간	보험개발원	조사	익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 (인물세)	매월	통계청	조사	익년 12월
KB주경기계동향	매월	KB부동산	조사	익년 12월
전국주택거래동향조사	매월	한국부동산원	조사	익년 12월
시도별 거주주거자료	연간(매 5년)	통계청	조사	익년 5월
광고연감	연간	제일기획	조사	익년 12월
정부 예결산서	연간	관련 정부기관	기공	익년 9월-익년 3월
원저책서	연간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사	익년 5월
교육통계연감	연간	교육부	조사	당해년
건강보험통계연보	연간	국민건강보험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	익년 10월
전국사업체조사	연간	통계청	조사	익년 1-2분기

사업체노동력조사	연간	고용노동부	조사	익년
고용보험통계연보	연간	고용노동부	조사	익년 12월
고용실태조사	연간(매 5년)	전산업 표본업체	조사	익년 3-4분기
농림어업조사	연간	통계청	조사	익년 4월
건설업조사	연간	통계청	조사	익년
가공무역 현황 조사	4년	위수탁 가공업체	조사	익년 2-4월
통관 수출입내역	연간	관세청	보고	익년 초순
외환수급통계(KFX)	연간	한국은행	보고	익년 초순
가공/중계무역 서베이	연간	한국은행	조사	익년 하순
대북거래	연간	한국은행	기공	익년 초순
무역외 세부수출입내역	연간	한국은행	기공	익년 초순
HS코드	연간	관세청	그 외	수시
환율	일/월/연간	한국은행	보고	수시
해외병커링금액	연간	대한석유협회 국적항공사(7개)	조사	익년 초순
한국영화산업발전	연간	영화진흥위원회	조사	익년 초순
국민여행 실태조사	연간	문화체육관광부	조사	익년 초순
외대관광객실태조사	연간	문화체육관광부	조사	익년 초순
투입구조조사	1년	한국은행	조사	통계 작성년도
산업활동동향(공업, 제조업동향조사)	월	통계청	조사/기공	매월 말
물가	월	한국은행(ECOS)	조사/1차통계	수시
통합물가정보	월	한국물가정보	조사/1차통계	매월 말
물가지표	월	한국물가정보	조사/1차통계	매월 중순
기업장영분석서	1년	한국은행	보고	익년 하순
광업, 광산물 통계연보	1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보고/1,2차통계	익년 중순
석유수급통계	매월	한국석유공사	조사/1차통계	수시
조선자료집	1년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기공	익년 초순

- 작성 및 공표주기: 기준년표 5년, 연장표 1년

- 작성방법: 경제총조사(국가데이터처), 통관신고자료(관세청), 외환수급자료(한국은행), 협회 및 기업 통계 등의 기초자료와 재료비·경비내역조사, 수입품배분구조조사, 가공무역 현황조사 등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실지조사를 통해 작성

- 자료수집 과정 및 방법

- 수집된 자료의 산업 또는 상품에 관한 정보는 산업연관표 부문분류 기준에 따라 IO코드별로 분류되어 통계 작성에 활용
- KSIC-IO 코드매치 파일(국가데이터처의 각종 조사자료), HS-IO 코드매치 파일(관세청 통관 신고자료), 국세청 업종-IO 코드매치 파일(국세청 과세표준자료) 등을 업데이트한 후 수집 자료를 IO코드별로 분류

(5) 국민계정(2024)

- 포괄범위 및 작성대상: 전국의 가계, 기업, 정부의 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단체 등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경제주체¹⁷⁾를 대상으로 추계.

- 기초자료: 생산국민소득 관련 부문별(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다양한 DB

○ 농림어업

차 례	작성기관	주요 내용	작성주기	작성형태	작성일
농림축산통계연보	농림축산통계본부	농산물 생산량 및 생산금액	연	조사	○
농축산물 소득지표집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 및 경영비	연	조사	○
인양통계자료집	농림축산통계본부	인양 생산량, 생산금액, 재배면적	연	조사	○
축산통계자료집	농림축산통계본부	축산통계 생산량 및 생산금액	연	조사	○
축산통계연보	농림축산통계본부	축산통계 생산량	연	조사	○
농가경제조사	통계청	농업 중간투입 및 소득	연	조사	○
어업경제조사	통계청	어업 중간투입 및 소득	연	조사	○
농업조사	통계청	재탄환 및 생산량	연	조사	○
농업통계자료집	농림축산통계본부	농축산물 생산량 및 중간투입가격	월	조사	○
가축통계조사	통계청	축산물 순중량수	분기	조사	○
가축통계	통계청	가축 기준 사육두수	연	조사	○
농업인생애조사	통계청	농업통계 생애비용	연	조사	○
도축통계	농림축산통계본부	축산물 도축두수	월	조사	○
가축성 생산 실적현황	농림축산통계본부	누계 사육 및 생산량	연	조사	○
주유 및 유류생산조사연보	농림축산통계본부	농산물 생산량	월	조사	○
일반사육, 농장경영자료	농림축산통계본부	사육 중량통계, 생애비용, 생산량 및 가격	연	조사	○
농업생산량 및 가격	통계청	농산물 생산량 및 가격	연	조사	○
일반생산량	통계청	일반생산량 및 가격	연	조사	○
어업생산량조사	통계청	어업생산량, 생산량 및 생산금액	연	조사	○
농림어업서비스 관련 조사	통계청	영양비용, 인력 및 인건비	연	보고	○
살얼 및 월별거래	통계청	농림어업서비스 산출액	연	보고	○
생산자물가통계	통계청	중간투입 가격	월	조사	○
소비자물가통계	통계청	중간투입 가격	월	조사	○
농가 판매 및 구입 가격조사	통계청	농가판매가격지수 및 농가구입가격지수	분기	조사	○

○ 광업

차 례	작성기관	주요 내용	작성주기	작성형태	작성일
광업제조업조사보고서	통계청	광업별 생산금액 및 생산비용	연	조사	○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기준년 총산출 및 부가가치율	연	가공	○
광업·광산물 통계연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별 생산량	월	조사	○
수출입통계	대한무역통화진흥위원회	통일 산출액	분기	조사	○
생산자물가지수	한국은행	총산출 및 중간투입 디플레이터	월	조사	○
원유, 원연가스 채굴 실적	한국석유공사	원유, 원연가스 생산량	월	조사	○
수입물가지수	한국은행	중간투입 디플레이터	월	조사	○
투연탄 채굴실적	대한석탄협회	투연탄 생산량	월	조사	○
광채취현황	자원교통부	채취, 로래 및 재산 생산량	연	조사	○
탄기안정대책보고서	한국광해관리공단	탄기안정 프로그램	분기	조사	○

○ 제조업

차 례	작성기관	주요 내용	작성주기	작성형태	작성일
제조업제조업조사보고서	통계청	제조업별 생산금액 및 생산비용	연	조사	○
국제수지통계	한국은행	수출입 실적 및 디플레이터	월	조사	○
기업경영통계	한국은행	부가가치율	연	조사	○
기업경영실적	각 기업	부가가치율	분기	조사	○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기준년 총산출 및 부가가치율	연	가공	○
생산자물가지수	한국은행	총산출 및 중간투입 디플레이터	월	조사	○
국제통계연보	국제통계	생산세, 보조금	연	보고	○
지방재정통계연보	행정안전부	생산세, 보조금	연	보고	○

○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구분	차 례	작성기관	작성주기	작성형태	작성일
전기업	발전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원전거래소 등	분기	보고	○
	전력거래당사자	한국전력거래소	월	조사	○
	규율관리당사자	한국전력공사	월	조사	○
	전력공회당사자	한국전력공사	월	조사	○
가스업	가스판매현황	한국전력거래소	연	조사	○
	발전사	한국가스공사	분기	보고	○
	가스판매실적	도시가스회사, 한국가스공사	분기	조사	○
	열공급	한국전력거래소	연	조사	○
수도사업	수도사업	한국수자원공사	연	보고	○
	수도사업	한국수자원공사	연	보고	○
	수도사업	한국수자원공사	연	보고	○
	수도사업	한국수자원공사	연	보고	○

○ 건설업

차 례	작성기관	주요 내용	작성주기	작성형태	작성일
건설업조사보고서	통계청	건설업별 생산금액 및 생산비용	연	조사	○
건축재정통계	국토교통부	건축재정통계	연	조사	○
중앙 및 지방정부 예산	각 지방정부 및 각 지방정부	예산집행실적	월	보고	○
지방재정통계	행정안전부	지방정부 예산집행실적	연	보고	○
공기업특별회계정산서	행정안전부	공기업특별회계 정산내역	연	보고	○
건설경제통계	대한건설협회	중합계통계	연	조사	○
기업경영통계	한국은행	채무비율 및 경영분석자료	연	조사	○
사업계획조사	국토교통부	사업계획	월	조사	○

- 작성 및 공표주기: 분기 및 연간

- 공표시점: 익익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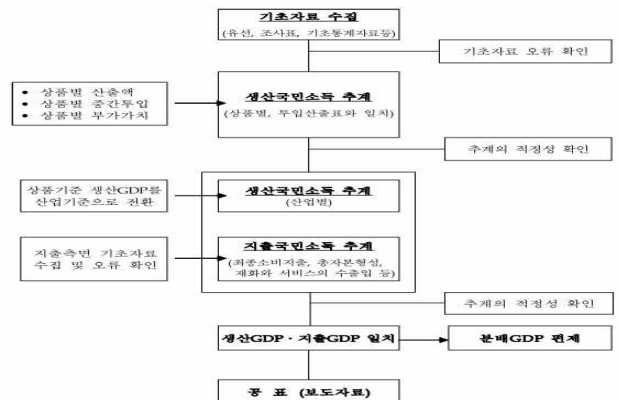
- 작성방법: 국가데이터처, 국세청 자료 및 통관 수출입자료를 국민계정통계에 이용하기 위해 국가데이터처 산업 및 상품 분류코드(KSIC)와 국세청 업종분류코드, 수출입코드(HS) 등을 국민계정 산업 및 상품 분류코드로 매칭하는 매칭표 이용

↳ 우리나라 국민계정의 산업(경제활동별) 및 상품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등을 반영한 국민계정 산업분류(KCEAN) 및 I-O 상품분류(Input-Output Statistics)를 따르고 있음

- 자료수집 과정 및 방법

• 기초자료 수집가능시기

해당 부문	자료명	수집가능시기
제조업	제조업조사보고서	익년 12월~익익년 1월
서비스업	서비스업조사보고서	익년 12월
건설업	건설업조사보고서	익년 12월
전체 산업	법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등 국세청 자료	익익년 1월
전체 산업	개인사업자 과세 신고자료	익익년 3월
공공행정국방	각종 세금 등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결산서	익익년 2월
금융보험업	금융기관 재무제표	익년초



17) 모든 경제주체는 거주자 제도부문별로 분류되며, 크게 비금융법인기업, 금융법인기업, 일반정부, 가계,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로 나누어짐

(6) 국제수지통계(2024)

- 포괄범위: 일정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발생한 모든 경제적 거래
- 작성항목: 국제수지통계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를 그 유형에 따라 경상수지, 자본수지 및 금융계정으로 구분하여 작성
- 기초자료: 국제수지는 가공통계로서 관세청의 통관 수출입통계, 외환수급통계, 외국환은행의 외화 B/S 이외에도 정부관련부처와 금융감독원, 기업, 협회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입수한 DB

자료명	작성주기	작성대상	작성형태	입수시기	자료명	작성주기	작성대상	작성형태	입수시기
■ 통관통계	월간	관세청	보고	익월 중순경	■ 선박·항공기 원자료수입·지급	월간	해운사, 항공사	조사	익월 중순경
■ 외환수급통계	월간	외국환은행	보고	작성 익월 중순경 회계·익년 11월경	■ 국제우편 정산내역	연간	서울지방우정청	조사	익년 10월경
■ 중계무역 조사	연간	중계무역 업체	조사	익년 4-5월경	■ 국제전신·전화서비스 정산내역	연간	통신사	조사	익년 10월경
■ 가공무역 조사	연간	가공무역 업체	조사	익년 6-7월경	■ 신용카드 사용실적	월간	신용카드사	조사	익월 중순경
■ 해외건설 조사	연간	건설사	조사	익년 9-10월경	■ 온라인 해외직접판매	월간	통계청	조사	익월 중순경
■ 일수출입 적발실적	월간	관세청	보고	익월 중순경	■ 적외보통자료	연간	보통개발원	조사	익년 9-10월경
■ 선박통관인도	월간	조선사	조사	익월 중순경	■ 해외출수재현황	분기	금융감독원	조사	익분기 초
■ 상호계산	월간	은행	조사	익월 중순경	■ 보험 손익계산서	연간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조사	익년 10-11월경
■ 항공수송실적	월간	한국공항공사	보고	익월 중순경	■ 외환전산망 보고서	월간	금융기관	조사 보고	작성 익월 중순경 회계·익년 11월경
■ 상업서류 송달 실적	월간	상업서류 송달업체	조사	익월 중순경	■ 수익재투자 조사	연간	금융기관	조사	익년 7-8월경
■ 대외원조실적	월간	한국국제협력단	보고	익월 중순경	■ 외국인직접투자 신고·도착 리스트	월간	산업통상자원부	보고	익월 중순경
■ 목축통관	월간	관세청	보고	익월 중순경	■ 현지금융 차입 및 상환·대지급 보고서	월간	외국환은행	조사	익월 중순경
■ 면세점 매출액	월간	면세점협회	보고	익월 중순경	■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월간	금융감독원	보고	익월 중순경
■ 보세판매장 판매현황	월간	관세청	보고	익월 중순경	■ 주식 발행 현황 및 직접금융 자금조달 실적	월간	금융감독원	보고	익월 중순경
■ 해운사 운임수입·수송량	월간	해운사	조사	익월 중순경	■ 외국인의 장외 주식거래현황(K-OTC)	월간	금융투자협회	보고	익월 중순경
■ 해운항만통계	월간	해양수산부	보고	익월 중순경	■ 해외증권투자 현황	월간	농협중앙회	보고	익월 중순경
■ 비축유 현황, 병커링 수출	월간	한국석유공사	보고	익월 중순경	■ 해외증권투자 현황	월간	한국투자공사	보고	익월 20일경
■ 해운사·항공사 운항경비	월간	해운사, 항공사	조사	익월 중순경	■ 해외증권투자 현황	월간	우정사업본부	보고	익월 중순경
■ 외형화물업 매출액	연간	통계청	조사	익월 중순경	■ 해외증권투자 및 대체투자 현황	월간	국민연금	보고	익월 20일경
■ 항공여객 운임수입	월간	항공사	조사	익월 중순경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월간	한국수출입은행	보고	익월 중순경
■ 항공화물 운임수입·지급	월간	항공사	조사	익월 중순경	■ FRB자금 입출금 내역	월간	방위사업청	보고	익월 20일경
					■ FMS예치금 송금실적표	월간	은행	보고	익월 중순경

- 작성 및 공표주기: 국제수지 - 매월(월중 국제수지통계를 익익월초에 공표)
지역별 국제수지통계 - 매년(연간 통계를 익년도 6월경 공표)
- 작성방법: 국제수지통계 작성에 이용하는 기초자료가 국제수지 편제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 (통관 수출입통계는 국제수지 기준에 맞도록 계상시점, 분류, 포괄범위 등 조정)
- 자료수집 과정 및 방법
 - 관세청 통관 수출입통계, 외환전산망 보고서, 외국환은행의 외화B/S, 정부관련부처와 금융감독원, 기업, 협회 및 금융기관 등 대상 조사표

(7) 문화체육관광산업통계(2022)

- 작성대상 범위: 문화체육관광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문화체육관광 관련 산업분류를 기준)

- 작성항목
 - 수출입 실적 현황 항목의 11개 분야 품목(품목 명칭변경, 세부 품목 변경)
 - 수출입 실적 세부 품목별 5년 시계열 자료 모두 재분류한 품목으로 통계값 변경(2018~2022년)
 - 수출입 실적 현황 자료 2022년 작성 기준년도 통계 추가 제공
 - 일자리 현황 항목별 월별 통계표에 연간평균값 제시
 - 경영활동 현황, 일자리 현황 산업분류체계 변경(3개 대분류, 25개 중분류)

- 기초자료: 국가데이터처의 기업통계등록부자료 및 4대보험자료 DB, 관세청의 수출입통관자료

- 작성 및 공표주기: 1년
- 공표시점: 익익년 12월

- 작성방법: 문화체육관광분야 영위 사업체에 대한 행정자료 연계를 통해 집계·분석함
 - 경영활동¹⁸⁾ 현황 : 2022년 기준 국가데이터처의 기업통계등록부자료
 - 4대보험 가입자 기준 일자리 현황 : 2022년 기준 국가데이터처의 4대보험자료 DB
 - 수출입 실적 : 2022~2023년 기준 관세청의 수출입통관자료

- 자료수집 과정 및 방법
 - 경영활동 현황, 일자리 현황(4대보험 가입자)은 국가데이터처 행정자료(또는 조사자료와 결합된)와 문화체육관광 관련 산업분류를 적용한 표본들을 연계하여 추정된 가공통계
 - 수출입 실적 현황은 문화체육관광 분야 수출입품목분류체계에 근거하여 관세청 행정자료의 품목을 추출하여 산출한 가공통계

18) 경영활동 현황의 매출액은 본 통계의 대상이 되는 사업체가 문화, 체육, 관광 이외의 영역에서 매출을 발생시키는 경우 이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산업의 매출액보다 크게 산출될 수 있음

부록4 유사 조사통계 작성현황 상세

(1) 콘텐츠산업조사¹⁹⁾(2023)

- 조사대상 범위: 총 11개 콘텐츠 산업 중, 8개 산업²⁰⁾은 실태조사, 2개 산업(영화, 광고)은 문화체육관광부 조사결과 인용, 방송산업은 방송통신위원회 조사결과 인용하여 작성
- 모집단: 콘텐츠산업 특수분류체계에 규정된 산업대분류 11개 영역(1.출판, 2.만화, 3.음악, 4.게임, 5.영화, 6.애니메이션, 7.방송, 8.광고, 9.캐릭터, 10.지식정보, 11.콘텐츠솔루션)산업을 영위하는 국내 소재 콘텐츠 사업체(종사자 1인 이상)

↳ 기준년도에 콘텐츠 산업 조업 실적이 있는 사업체

- 작성단위 및 조사대상 규모: 사업체 (콘텐츠관련 사업체 14,000 표본)
- 표본추출틀: 국가데이터처 2022년 기준 기업통계등록부(경제총조사 연계, 연간, 사업체 단위)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콘텐츠산업 특수분류’와 연계되는 사업체를 기준으로 중복 사업체 제거 및 정비를 통해 휴·폐업·업종영위·누락 여부 등 확인. 2023년 동 조사에서 콘텐츠산업으로 분류된 주요 사업체를 통해 보완함.

↳ 2023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는 국내 콘텐츠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중 18,118개 사업체를 대상

↳ 산업규모는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모수 추정함 결과임

- 조사항목: 사업체정보, 사업체현황(매출액 등), 종사자현황, 해외거래현황(수출입액) 등
- 조사방식: 방문면접조사
- 공표시점: 조사년도 익년 2월

저작권산업 특수분류 '콘텐츠'	1 핵심저작권
	106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10603 데이터베이스 제공업 - 1060303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4 저작권지원산업
	400 저작권지원
	40003 통신, 정보서비스업 - 4000305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19) 2020년 명칭변경(콘텐츠산업통계조사▶콘텐츠산업조사), 2022년 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연계 변경, 2022년 표본추출틀 변경(전국사업체조사▶기업통계등록부)

20) 출판, 음악, 게임, 캐릭터, 지식정보, 만화(전수조사), 애니메이션(전수조사), 콘텐츠솔루션(전수조사)

(3) 예술인실태조사²³⁾(2023)

- 조사대상 범위: 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대중음악, 방송연예, 무용, 연극, 영화, 만화, 기타 14개 분야별 활동 예술인
- 목표모집단: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국가 문화예술지원시스템 등록 예술인, 예술분야 협회 및 단체 회원
- 조사모집단 : 모집단 명부에서 조사를 할 수 없는 대상과 중복대상자를 제외한 334,036명으로 정함 ① 예술인 활동 증명을 받은 예술인, ② 예술인 협회와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 ③ 저작권이 있어 이를 통해 저작료 수입을 얻기 위해 신탁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예술인, ④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또는 지자체 등의 예술인 지원사업을 신청한 예술인

- 작성단위 및 조사대상 규모: 개인 (목표 표본수 전국 5000명)
- 표본추출틀: 가. 조사 모집단에 있는 대상들 중에서 제공된 예술인 리스트
 - 나. 총 49개 기관²⁴⁾에서 예술인 정보를 협조받음
 - ① 유관기관: 2개, ② 저작권 신탁단체: 8개, ③ 민간 협회·단체: 26개,
 - ④ 광역자치단체: 13개(타 기관과 자료 중복으로 일부 지역 미제출)

- 조사항목: 예술활동 및 비예술활동 수입지출현황, 저작권(저작인접권) 보유현황 등
- 조사방식: 방문면접조사, 온라인조사(전화, 메일, 팩스) 병행

- 공표(조사)주기: 3년
- 기준시점: 조사전년도 1~12월
- 자료수집시점: 조사기준년도 익년 12월~익익년 2월
- 공표시점: 작성기준 년 익년 5월

23) 2015년 명칭(문화예술인실태조사▶예술인실태조사) 및 모집단 변경

24) 협회·단체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주요 예술분야 협회·단체의 리스트는 반드시 제공하도록 함

(4) 신문·잡지산업실태조사(2023)

- 목표모집단(조사대상)

- 신문산업실태조사: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이하 신문법)에 제2조에 정의된 ‘신문’ 과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는 사업체 전수
- 잡지산업실태조사: 지자체에 ‘정기간행물’로 등록된 ‘잡지²⁵⁾’ 발간 사업체 전수

- 조사모집단

- 기준년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정기간행물 가운데 정상 발행이 확인된 일간신문, 주간신문, 인터넷신문 등(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정기간행물 현황으로 파악 가능) 중 전화조사를 통해 중복 및 휴폐업, 비대상 등은 제외, 2023년 기준 6218개 사업체
- 기준년도 지방자치단체에 정기간행물로 등록된 잡지 발간 사업체 중 잡지 발행이 최종 확인된 1796개 사업체(2023년 기준)

- 작성단위 및 조사대상 규모: 사업체 (모집단 중 발행이 확인된 일간,주간신문 발행 사업체 전수 15000여개 매체 중, 최종 발행 확인된 모집단 6,218 사업체)

- 표본추출틀: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 리스트 등록매체 전수조사

- 조사항목: 사업체 일반현황, 재무현황(매출액, 지출액 등), 종사자현황 등

- 조사방식: 방문면접조사, 온라인조사(전화, 메일, 팩스) 병행

- 공표시점: 조사기준년도 익년 12월

저작권산업 특수분류 '신문' '잡지'	1 핵심저작권
	101 출판 및 문학
	10102 신문 발행업
	10103 뉴스 및 사진제공업
	10104 잡지, 정기간행물 발행업
	- 1010401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10107 서적, 잡지, 신문, 광고물의 인쇄업
	10108 출판 및 문학 유통업
	- 1010801 서적, 잡지 및 신문 도매업
	- 1010802 서적 및 잡지류 도매업
- 1010803 서적 임대업	
2 상호의존저작권산업	
200 상호의존저작권	
20007 종이 제조 및 유통업	
- 2000702 신문용지 제조업	

25) 잡지: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형태의 간행물

(5) 디자인산업통계(2024)

- 목표모집단

- 일반업체(디자인활용업체 포함): 디자인산업분류에 해당하는 종사자 5인 이상의 사업체 중 '국가 및 정부지자체 유형' 제외
- 디자인전문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전문디자인업' 해당 사업체 중 '국가 및 정부지자체 유형' 제외

- 작성단위 및 조사대상 규모: 사업체 및 기관 (일반 20000개, 디자인활용업체 1800, 디자인전문업체 600개, 중앙부처 및 지자체 전수)

- 표본추출틀

- (일반업체 대상) 디자인활용여부 조사: 2022년 전국사업체조사 중 디자인산업분류에 해당하는 5인 이상 업체
- 디자인활용업체: 디자인산업분류에 해당하는 5인 이상 일반업체 중 디자인활용업체
- 전문디자인업체: 2022년 전국사업체조사 중 전문디자인업²⁶⁾으로 분류된 사업체
- 공공부문(중앙부처 및 지자체): 중앙부처 42개 기관, 지자체(행정시/자치구) 243개

- 조사항목: 매출액, 영업이익, 종사자 수 등

- 조사방식: 방문면접조사, 온라인조사(전화, 메일, 팩스) 병행

- 공표시점: 조사기준년도 익익년 2월

저작권산업 특수분류 '디자인'	1 핵심저작권
	107 시각과 그래픽 아트
	10704 그래픽 디자인업
	3 부분저작권산업
	300 부분저작권
	30009 생활 공간 디자인업

26) 제품디자인(73202, 디자인산업특수분류 1-7-1), 시각디자인(73203, 디자인산업특수분류 2-5-6), 인테리어 디자인(73201, 디자인산업특수분류 4-10-1),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73209, 디자인산업특수분류 5-5-1) 해당 사업체

(6) 스마트미디어산업실태조사(2022)

- 조사대상 범위: 국내 스마트미디어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 목표모집단: 국가데이터처 전국사업체조사 모집단 활용하여 구축한 ICT통합분류체계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 가상증강현실미디어 사업을 영위하는 전국 모든 사업체 약 1,200개 전수조사
- 작성단위 및 조사대상 규모: 전국 스마트미디어 산업 관련 사업체 1200여개 대상 중, 기업체 711개(OTT 118개, 디지털사이니지 302개, 소셜미디어 282개, 실감미디어 9개)
- 조사항목: 소재지, 근로자수, 기업규모, 국내외 매출액, 유형별 매출 비중, 인력현황 등
- 조사방식: 방문면접조사, 온라인조사(전화, 메일, 팩스) 병행
- 공표시점: 조사기준 년 익익년 6월

품목 대분류	품목 중분류	품목 소분류	산업 소분류 (ICT 통합분류체계)	산업 중분류 (ICT 통합분류체계)	산업 대분류 (ICT 통합분류체계)	한국표준산업분류 (K SIC)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Over-the- top)	OTT 플랫폼 서비스	정보매개 및 제공서비스업 방송프로그램공급 업	정보서비스업 방송서비스업	정보통신방송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591)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631) 프로그램 공급업(60221)	
		OTT 콘텐츠 제작 및 공급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26519)	
		전용기기				영상기기업	영상 및 음향기기업
	FAST (Free ad- supported streaming TV)	광고	방송프로그램공급 업 영상기기업	방송서비스업 영상 및 음향기기업	정보통신방송 서비스업 정보통신방송 기기업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591) 프로그램 공급업(60221)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26519)	
디지털 사이니지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디지털 실내 광고	한국외광고센터 '옥외광고 통계' 및 조사결과 합산 재가공			광고 대행업(71310) 옥외 및 전시 광고업(71391)	
		디지털 실외 광고				기타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IT서비스 제공업
	디지털 사이니지 서비스	디지털사이니지 콘텐츠 제작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츠 개발·제작업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22)	
		디지털사이니지 솔루션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IT서비스 제공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62010)	
	디지털 사이니지 기기	디스플레이 패널	(액정·유기발광·기 타 표시장치 제조업)	전자부품업		정보통신방송 기기업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26211) 유기발광 표시장치 제조업(26212)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26219)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28423)
							디스플레이 세트
		디지털사이니지 제품					

(7) 디지털크리에이티브미디어산업실태조사(2024)

- 조사대상 범위: 디지털크리에이티브미디어산업 산업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체
- 모집단: 2023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결과 중 디지털크리에이티브미디어산업에 연계된 KSIC10에 해당되는 사업체
- 작성단위 및 조사대상 규모: 사업체 (디지털크리에이티브미디어 콘텐츠를 공급 및 유통하는 사업체 1,000개)
- 표본추출틀: 2022년 전국사업체조사의 사업체(판별조사) 중, 적격사업체(디지털 크리에이티브미디어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체)
- 조사항목: 사업체 일반현황, 경영현황, 인력현황, 사업현황, 해외 수출 현황 등
- 조사방식: 방문면접조사, 온라인조사(전화, 메일, 팩스) 병행
- 공표시점: 조사기준 년도 익년 11월

저작권산업 특수분류 '디지털'	4 저작권지원산업
	400 저작권지원
	40003 통신, 정보서비스업
	- 4000305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8) 방송산업실태조사(2024)

- 조사대상 범위: 사업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된 방송사업자 및 IPTV콘텐츠사업자)
- 목표모집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된 방송사업자
- 조사모집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된 방송사업자(전년도 12월 말 기준) 중 전년도 기준 실질적으로 방송을 운영한 사업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제출²⁷⁾ 사업자
- 작성단위 및 조사대상 규모: 사업체 (2023년 기준 전체 387개사 전수조사)
- 표본추출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사업자), 방송통신위원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DMB사업자, 공동체라디오사업자, 종합편성사업자)의 방송사업자 승인·등록 명단
- 조사항목: 종사자현황, 매출액, 투자현황, 제작비용 등
- 조사방식: 온라인조사(사업자 상황별 이메일, 팩스, 우편 병행)
- 공표시점: 조사기준 년 익년 12월

저작권산업 특수분류 '방송'	1 핵심저작권
	101 출판 및 문학
	10103 뉴스 및 사진제공업
	104 라디오, 텔레비전
	108 광고서비스
	10800 광고 대행서비스업
	- 1080004 광고물 작성업
	2 상호의존저작권산업
	200 상호의존저작권
	20001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 및 유통업
- 2000102 방송장비 제조업	
- 2000198 기타 통신 및 방송장비 임대업	
4 저작권지원산업	
400 저작권지원	
40003 통신, 정보서비스업	
- 4000398 기타 전기통신업	

27) 모집단 변동에 따른 모집단 개편 완료 후, 실제 조사기준 연도에 방송사업 영위한 사업자를 최종 모집단으로 확정
 - 방송사업 운영 여부는 방송사업매출 1억 이상을 기준으로 선정(방송사업매출 1억 이상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에 필수적으로 자료 제출해야함)

부록5 저작권특수산업분류체계(2025) - 개정전/후 변경사항

□ 핵심저작권산업 - 출판 및 문학(101)

저작권산업특수분류 (KSCIC) - 2025개정				WIPO 및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v4)			
세분류 코드 및 분류명		세분류 코드 및 분류명		WIPO 경제활동		ISIC v.4 분류 항목	
1)문학 관련예술가	1010101					9000	Creative, arts, and entertainment activities
번역서비스업	1010102	작가 및 번역활동 (1인 산업활동 포함)	10101	작가, 필자, 번역가		7490	Other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activities n.e.c. (including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activities)
						8299	Other business support service activities n.e.c. (including real-time, i.e. simultaneous, closed captioning of live television performances of meetings, conferences)
신문 발행업	1010200	신문 발행업	10102	신문, 잡지/정기 간행물	5813	Publishing of newspapers, journals, and periodicals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1010401	잡지, 정기간행물 발행업	10104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	1010402						
뉴스 제공업	1010300	뉴스 제공업	10103	뉴스 및 사진제공업	6391	News agency activities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1010501			서적 출판	5811	Book publishing	
만화책 출판업	1010502						
2)웹툰 출판업	1010503	서적 출판업	10105				
2)서적 출판업	1010504						
2)웹소설 출판업	1010505						
기타 인쇄물 출판업(카드, 달력 등)	1010600	카드, 지도, 기타 인쇄물 출판업	10106	카드, 지도, 기타 출판물	5812	Publishing of directories and mailing lists	
					5819	Other publishing activities	
1)경인쇄업(서적, 잡지, 신문, 광고물)	1010701			서적, 잡지, 신문, 광고물의 인쇄	1811	Printing	
스크린 인쇄업(서적, 잡지, 신문, 광고물)	1010702						
2)오프셋 인쇄업(서적, 잡지, 신문, 광고물)	1010703	서적, 잡지, 신문, 광고물의 인쇄 및 인쇄 관련업	10107				
2)기타 인쇄업(서적, 잡지, 신문, 광고물)	1010799						
2)출판물 제판 및 조판업	1010704						
2)출판물 제책업	1010705						
2)문서 복사업	1010706						
2)인쇄 관련업(서적, 잡지, 신문, 광고물)	1010707						
서적, 잡지 및 신문 도매업	1010801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1010802						
서적 임대업	1010803	출판 및 인쇄물 유통업	10108	출판, 문학의 도소매	4761	Retail sale of books, newspapers, and stationery in specialized shops	
2)문구용품 도매업	1010804						
2)문구용품 소매업	1010805						
2)온라인 전자출판물 제공업	1010806						
1)도서관 운영업	1010900	도서관 운영업	10109	도서관	9101	Library and archives activities	

1) 분류명 변경; 2) 분류 세분/신설(분류명 및 분류코드 변경)

□ 핵심저작권산업 - 음악, 연극, 기타 공연 예술(102)

저작권산업특수분류 (KSCIC) - 2025개정		WIPO 및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v4)		
세세분류 코드 및 분류명	세분류 코드 및 분류명	WIPO 경제활동	ISIC v.4 분류 항목	
2)음악,연극 공연자	1020101	작곡가, 작사가, 편곡가 안무가, 평론가 지휘자, 연주자, 기타 관련 직원	9000 Creative, arts, and entertainment activities	
2)음악,연극 관련 예술가(공연자제외)	1020102			
3)연극 단체	1020103			
3)무용 및 음악단체	1020104			
3)기타 공연단체	1020105			
공연시설 운영업	1020106	1)공연 예술가, 예술 단체 및 시설운영	10201	
2)문화예술 학원	1020107			
3)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1020201	음악의 인쇄 및 출판	5920 Sound recording and music publishing activities	
2)오디오물 원판녹음업	1020202			
음반 및 공연영상물 복제업	1020300	1)음반 및 공연 영상물 복제업	10203	
음반 및 공연영상물 도매업	1020401	1)녹음된 음악의 유통업	10204	
음반 및 공연영상물 소매업	1020402			
음반 및 공연영상물 임대업	1020403			
2)온라인 음악 및 오디오물 제공	1020404			
2)공연 기획업	1020501	4)공연창작및오락 관련 서비스업	10205	
4)공연 창작 관련 서비스업	1020502			
4)오락 관련 서비스업	1020503			
		예술적, 문학적 생산 및 번역	9000	Creative, arts, and entertainment activities
		공연 및 관련 업체	7990	Other reservation service and related activities (including ticket sales, activities for theatrical, sports, and other amusement and entertainment events)
			9000	Creative, arts, and entertainment activities

1) 분류명 변경

2) 분류 세분/신설(분류명 및 분류코드 변경)

3) 분류코드 변경

4) 분류 통합(분류명 및 분류코드 변경)

□ 핵심저작권산업 - 영화, 비디오(103)

저작권산업특수분류 (KSCIC) - 2025개정				WIPO 및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v4)	
세분류 코드 및 분류명		세분류 코드 및 분류명		WIPO 경제활동	ISIC v.4 분류 항목
1)연기자	1030101	영화 비디오예술단체	10301	시나리오 작가, 감독, 배우	9000 Creative, arts, and entertainment activities
1)영화,비디오 관련 예술자(연기자 제외)	1030102	(1인 산업활동 포함)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1030201	1)영화 및 비디오의 제작/배급업	10302	영화 및 비디오의 제작과 유통	5911 Motion picture, video, and television program production activities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1030202				5912 Motion picture, video, and television program post production activities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1030203				5913 Motion picture, video, and television program distribution activities
영화, 비디오물 제작 관련 서비스업	1030204				5914 Motion picture projection activities
영화, 비디오물 배급업	1030205				7722 Renting of video tapes and discs
영화 및 비디오물 녹음시설 운영	1030206	영화 시설 운영업	10303	영화 상영	4649 Wholesale of other household goods (including wholesale of DVDs)
영화관 운영업	1030301				4762 Retail sale of music and video recordings in specialized shops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1030302	비디오 임대 유통업	10304	비디오 대여, 판매, VOD	1820 Reproduction of recorded media
비디오물 도매업	1030401				
비디오물 소매업	1030402				
비디오물 임대업	1030403				
2)온라인 영화, 비디오물 제공업	1030404				
영화, 비디오물 관련 기록매체업	1030500	1)영화, 비디오물 관련 기록매체업	10305	관련 서비스	

1) 분류명 변경

2) 분류 세분/신설(분류명 및 분류코드 변경)

□ 핵심저작권산업 - 라디오, 텔레비전(104)

저작권산업특수분류 (KSCIC) - 2025개정				WIPO 및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v4)		
세세분류 코드 및 분류명		세분류 코드 및 분류명		WIPO 경제활동	ISIC v.4 분류 항목	
방송 프로그램제작업	1040101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제작/배급업	10401	TV 프로그램 제작	5911	Motion picture, video, and television program production activities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1040102				5912	Motion picture, video, and television program post production activities
방송 프로그램배급업	1040103				5913	Motion picture, video, and television program distribution activities
라디오 방송업	1040201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업	10402	전국망 라디오, TV 방송국	6010	Radio broadcasting
지상파 방송업	1040202				6020	Television programming and broadcasting activities
프로그램 공급업	1040203					
1) 독립제작사 운영업	1040300	독립제작사 운영업	10403	독립제작사	5911	Motion picture, video, and television program production activities
3) 유선 방송업	1040400	유선 방송업	10404			
4) 위성 방송업	1040500	위성 방송업	10405			

1) 분류명 변경

3) 분류코드 변경

4) 분류 통합(분류명 및 분류코드 변경)

□ 핵심저작권산업 - 사진(105)

저작권산업특수분류 (KSCIC) - 2025개정		WIPO 및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v4)		
세세분류 코드 및 분류명	세분류 코드 및 분류명	WIPO 경제활동	ISIC v.4 분류 항목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	1050101	스튜디오 및 상업 사진	7420	Photographic activities
상업용 사진촬영업	1050102			
사진 처리업	1050103			
1) 사진 작가	1050104			
사진물 제판 및 조판업	1050201	사진 관련업	10502	
사진물 제작업	1050202			
4) 도서관 및 기록보존소 운영업 (사진분야)	1050203			

1) 분류명 변경

4) 분류 통합(분류명 및 분류코드 변경)

□ 핵심저작권산업 -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106)

저작권산업특수분류 (KSCIC) - 2025개정			WIPO 및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v4)	
세세분류 코드 및 분류명	세분류 코드 및 분류명	WIPO 경제활동	ISIC v.4 분류 항목	
4)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060101	프로그래밍 개발 및 공급업 10601	프로그래밍, 개발 및 디자인	5820	Software publishing
3)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060102			6201	Computer programming activities
3)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060103			6202	Computer consultancy and computer facilities management activities
3)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1060104			6209	Other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mputer service activities
3)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1060105				
3)컴퓨터시설 관리업 1060106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1060199				
소프트웨어 도매업 1060201	패키지 소프트웨어 유통업 10602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도매/소매업	4651	Wholesale of computers, computer peripheral equipment, and software (including software)
소프트웨어 소매업 1060202			4741	Retail sale of computers, peripheral units, software and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in specialized stores (including retail sale of non-customized software, including video games)
자료 처리업 1060301	1)온라인정보 서비스업 10603	데이터베이스 처리 및 출판	6311	Data processing, hosting, and related activities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1060302			6312	Web portals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1060303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업 1060304				

1) 분류명 변경

2) 분류 세분/신설(분류명 및 분류코드 변경)

3) 분류코드 변경

4) 분류 통합(분류명 및 분류코드 변경)

□ 핵심저작권산업 - 시각과 그래픽 아트(107)

저작권산업특수분류 (KSCIC) - 2025개정				WIPO 및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v4)		
세세분류 코드 및 분류명		세분류 코드 및 분류명		WIPO 경제활동	ISIC v.4 분류 항목	
1)미술가 및 관련 예술가	1070100	1)미술가 및 관련 예술가	10701	예술가	9000	Creative, arts, and entertainment activities
예술품 유통업(그림소매, 화랑, 미술품소매)	1070201	4)예술품 유통 및 관련 서비스업	10702	아트 갤러리, 기타 도소매	9000	Creative, arts, and entertainment activities
시각예술 관련서비스업(무대예술 운영)	1070202			표구 및 관련 서비스	7420	Photographic activities
2)시각예술 인쇄업	1070203			인쇄 관련 서비스	1812	Service activities related to printing (inc. artistic work)
3)시각 디자인업	1070301	4)전문 디자인업	10703	그래픽 디자인	9000	Creative, arts, and entertainment activities
4)기타 전문디자인업	1070399				1812	Service activities related to printing (inc. artistic work)
					7410	Specialized design activities (inc. graphic designers)

1) 분류명 변경

2) 분류 세분/신설(분류명 및 분류코드 변경)

3) 분류코드 변경

4) 분류 통합(분류명 및 분류코드 변경)

□ 핵심저작권산업 - 광고 서비스(108)

저작권산업특수분류 (KSCIC) - 2025개정		WIPO 및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v4)	
세세분류 코드및 분류명	세분류 코드및 분류명	WIPO 경제활동	ISIC v.4 분류 항목
광고 대행업	1080001	대행사, 매체대행 서비스	7310 Advertising
옥외 및전시 광고업	1080002		
3)광고물 작성업	1080003		7320 Market research and public opinion polling (inc. marketing studies)
4)시장조사업	1080004		
1)기타 광고관련 서비스업	1080099		

- 1) 분류명 변경
- 2) 분류 세분/신설(분류명 및 분류코드 변경)
- 3) 분류코드 변경
- 4) 분류 통합(분류명 및 분류코드 변경)

□ 핵심저작권산업 - 저작권 협회(109)

저작권산업특수분류 (KSCIC) - 2025개정				WIPO 및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v4)		
세세분류 코드및 분류명		세분류 코드및 분류명		WIPO 경제활동	ISIC v.4 분류 항목	
전문가 단체 (저작권집중관리단체12개)	1090001	저작권 협회	10900	저작권 협회	9412	Activities of professional membership organizations (inc. associations of specialists engaged in cultural activities)
4)저작권 대리중개업	1090002					

4) 분류 통합(분류명 및 분류코드 변경)

□ 상호의존저작권산업 - 상호의존저작권(200)

저작권산업특수분류 (KSCIC) - 2025개정			WIPO 및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v4)										
세세분류 코드 및 분류명	세분류 코드 및 분류명	WIPO 경제활동	ISIC v.4 분류 항목										
유선 통신장비제조업	2000101	20001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 및 유통업 (가정용 가전제품 및 오락용품 포함)	2630	Manufacture of communication equipment (inc. radio and TV studio and broadcasting equip.)									
방송장비 제조업	2000102			2640	Manufacture of consumer electronics (inc. TVs, VCRs, DVDs, Hi-Fis, consoles)								
4)스마트기기 제조업	2000103				4649	Wholesale of other household goods (inc. wholesale of consumer electronics)							
2)스마트기기 유통업	2000104					4742	Retail sale of audio and video equipment in specialized stores						
3)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000105						7729	Renting and leasing of other personal and household goods (inc. household electronic equipment)					
3)텔레비전 제조업	2000106							7730	Renting and leasing of other machinery, equipment (inc. radio & TV equipment)				
3)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2000107								2620	Manufacture of computers and peripheral equipment			
3)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2000108									4651	Wholesale of computers, peripheral equipment, and software		
3)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2000198										4741	Retail sale of computers, software, telecom equipment in specialized stores	
영상게임기 제조업	2000109											7730	Renting and leasing of computers and peripherals
가전제품 및 부품 도매업	2000110												3220
1)가전통신제품 소매업	2000111	4649	Wholesale of other household goods (inc. musical instruments)										
3)기타 통신장비, 가정용품 임대업	2000199		4759	Retail sale of electrical household appliances (inc. musical instruments)									
4)컴퓨터 기억장치 및 주변 기기 제조업	2000201			7729	Renting & leasing of musical instruments, scenery, costumes								
3)컴퓨터 및 주변장치 도매업	2000202				2670	Manufacture of optical & photographic equipment							
3)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치 임대업	2000203					4649	Wholesale of photographic and optical goods						
4)악기 제조업	2000301						4773	Retail sale of photographic, optical & precision equipment					
4)악기 도소매 및 임대업	2000302							7730	Renting & leasing of film production equipment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2000401								2817	Manufacture of office machinery (inc. photocopy machines)			
사진기, 영사기 및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2000402									4652	Wholesale of office machinery and equipment		
사진장비 및 광학용품 도매업	2000403										2680	Manufacture of magnetic & optical media	
4)사진장비 및 광학, 정밀기기 소매업	2000404											4652	Wholesale of electronic & telecom equipment and parts (inc. blank media)
3)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2000499	1701											Manufacture of pulp, paper, and paperboard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000501		1702										Manufacture of corrugated board and paperboard containers
사무용 가구 및 기기 도매업	2000502			1709									Manufacture of other articles of paper and paperboard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2000601				20007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2000602					20006							
4)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000701						20007						
3)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	2000702							20007					
4)종이 포대, 판지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2000703								20007				
4)기타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	2000799									20007			

□ 부분저작권산업 - 부분저작권(300)

저작권산업특수분류 (KSCIC) - 2025개정			WIPO 및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v4)		
세세분류 코드 및 분류명	세분류 코드 및 분류명	WIPO 경제활동	ISIC v.4 분류 항목		
4)남녀용 겹옷제조업	3000101	어패럴, 직물, 신발 제조 및 유통업 30001	의패럴, 직물, 신발	1410	Manufacture of wearing apparel
3)속옷 및 잠옷 제조업	3000102			1392	Manufacture of made-up textile articles, except apparel
3)한복 제조업	3000103			1520	Manufacture of footwear
4)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3000199			4641	Wholesale of textiles, clothing, and footwear
3)편조의복 제조업	3000104			4751	Retail sale of textiles in specialized stores
4)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3000105			4771	Retail sale of clothing, footwear, and leather articles in specialized stores
4)직물제품 제조업	3000106			7410	Specialized design activities
4)신발 및 부분품 제조업	3000107				
4)가정용 섬유 및 직물 제품 도매업	3000108				
4)의류 도매업	3000109				
4)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	3000110				
4)신발 도소매업	3000111				
4)섬유, 직물 및 의복 액세서리 소매업	3000112				
4)의류 소매업	3000113				
2)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3000114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3000201	보석, 귀금속 제조 및 유통업 30002	보석, 귀금속	3691	Manufacture of jewelry and related articles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3000202			3212	Manufacture of imitation jewelry and related articles
시계 및 귀금속 제품 도매업	3000203			4649	Wholesale of other household goods (inc. jewelry)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3000204			4719	Other retail sales in non-specialized stores (inc. jewelry)
				4773	Other retail sales of new goods in specialized stores (inc. jewelry)
2)공예 기념품 유통업	3000301	기타 공예품 유통업 30003	기타 공예품	7410	Specialized design activities
2)공예 생활용품 유통업	3000302			9499	Activities of other membership organizations n.e.c. (inc. craft and collectors' clubs)
				4719	Other retail sales in non-specialized stores (inc. handicrafts)
				4759	Retail sale of electrical household appliances, furniture
4)침대 및 내장 가구 제조업	3000401	가구 제조 및 유통업 30004	가구	7410	Specialized design activities
4)목재 가구 제조업	3000402			3100	Manufacture of furniture
4)기타 가구 제조업	3000498			4649	Wholesale of other household goods (inc. furniture)
3)가정용 가구 도매업	3000403			4719	Other retail sales in non-specialized stores (inc. furniture)
3)가구 소매업	3000404			4759	Retail sale of electrical household appliances, furniture
그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3000499			7410	Specialized design activities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3000501	가정용품, 자기, 유리 30005	가정용품, 자기, 유리	7729	Renting and leasing of other personal and household goods (inc. furniture)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3000502			2310	Manufacture of glass and glass products
편조제품 제조업	3000503			1391	Manufacture of knitted and crocheted fabrics
				1430	Manufacture of knitted and crocheted apparel

4)주방용, 장식용 나무제품 제조업	3000504				1629	Manufacture of other products of wood
4)금속가공제품 제조업	3000505				2599	Manufacture of other fabricated metal products n.e.c.
4)조명기구 및 비전기식 생활용 기기 도매업	3000506				4649	Wholesale of other household goods (inc. china and glassware)
4)의약품, 의료용품 및 화장품 도매업	3000507				4752	Retail sale of hardware, paints, and glass in specialized stores
4)운동 및 경기용품, 자전거 도매업	3000508				4759	Retail sale of electrical household appliances, lighting & household articles
4)가방 및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3000509					
4)철물, 공구, 창호 및 건설자재 소매업	3000510					
3)가전제품 소매업	3000511					
3)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3000512				7410	Specialized design activities
2)가정용 유리, 요업제품 소매업	3000513					
3)그외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3000599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3000601	벽지, 카펫			1393	Manufacture of carpets and rugs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3000602	제조 및 유통	30006	벽지, 카펫	1709	Manufacture of other articles of paper and paperboard
4)벽지 및 장판류 도소매업	3000603	업			4753	Retail sale of carpets, rugs, wall and floor coverings
					7410	Specialized design activities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3000701	장난감, 게임			3240	Manufacture of games and toys
장난감 및 취미용품 도매업	3000702	용품 제조 및	30007	장난감, 게임용품	4649	Wholesale of other household goods (inc. toys)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3000703	유통업			4719	Other retail sales in non-specialized stores (inc. toys)
					4764	Retail sale of games and toys in specialized stores
					7410	Specialized design activities
4)건축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3000801	건축, 엔지니어링, 측량	30008	건축, 엔지니어링, 측량		
4)엔지니어링 서비스업	3000802	어링, 측량 서비스업			7110	Architectural and engineering activities and related technical consultancy
1)실내 공간 디자인업	3000901	생활	30009	인테리어 디자인		
외부 공간 디자인업	3000902	공간디자인업			7410	Specialized design activities (inc. interior decorators)
1)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3001000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30010	박물관	9102	Museums activities and preservation of historical sites and buildings

1) 분류명 변경

2) 분류 세분/신설(분류명 및 분류코드 변경)

3) 분류코드 변경

4) 분류 통합(분류명 및 분류코드 변경)

□ 저작권지원산업 - 저작권지원(400)

저작권산업특수분류 (KSCIC) - 2025개정				WIPO 및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v4)		
세세분류 코드 및 분류명		세분류 코드 및 분류명		WIPO 경제활동	ISIC v.4 분류 항목	
상품 중개업	4000101	일반 도소매업	40001	일반 도소매업	46	Wholesale trade and commission trade, except of motor vehicles and motorcycles
가정용품 도매업	4000102				461	Wholesale on a fee or contract basis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4000103				464	Wholesale of household goods (not prev. inc. in other CIs)
건축자재, 철물 및 난방장치 도매업	4000104				466	Other specialized wholesale
상품종합도매업	4000105				47	Retail trade, except of motor vehicles and motorcycles: repair of personal and household goods
기타 전문 도매업	4000198				471	Retail sale in non-specialized stores (not prev. inc. in other CIs)
종합 소매업	4000106				474	Retail sal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equipment in specialized stores (not prev. inc. in other CIs)
정보통신장비소매업	4000107				475	Retail sale of other household equipment in specialized stores (not prev. inc. in other CIs)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4000108				476	Retail sale of other goods in specialized stores (not prev. inc. in other CIs)
3)가정용품 소매업	4000109				477	Retail sale of cultural and recreation goods in specialized stores (not prev. inc. in other CIs)
3)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4000110				478	Retail sale via stalls and markets
3)연료 소매업	4000111				479	Retail trade not in stores, stalls, or markets
3)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4000199					
3)무접포 소매업	4000112	일반 운송업	40002	일반 운송업	49	Land transport: transport via pipelines
철도운송업	4000201				50	Water transport
육상 여객 운송업	4000202				51	Air transport
도로 화물 운송업	4000203				522	Support activities for transportation (52.21/22/23/24/29)
수상 운송업	4000204				53	Postal and courier activities
항공 운송업	4000205				79	Travel agency, tour operator, reservation service and related activities
보관 및 창고업	4000206					
4)화물 취급 및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4000207					
우편업	4000208					
소화물 전문 운송업	4000209				40003	40003
4)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	4000210					
4)통신업	4000300					

1) 분류명 변경

2) 분류 세분/신설(분류명 및 분류코드 변경)

3) 분류코드 변경

4) 분류 통합(분류명 및 분류코드 변경)

부록6 저작권요소(copyright factor) 조사

< 설문조사 질문지- 예시 >

우리나라 저작권산업의
저작권 요소(copyright factor) 조사

ID			
----	--	--	--

응답자	성명		사업체명	
	업종		전화번호	() -
	2009년도 매출액	백만원	종업원수	명
	소재지			
면접원	성명		면접일시	
검증원	성명		검증결과	

문1. 귀사의 주요 생산품은 무엇인가요?

문2. 귀사의 생산활동에 있어서 저작권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매우 중요 ② 중요 ③ 약간 중요 ④ 중요하지 않음

문3. 귀사가 생산활동을 영위함에 있어서 로열티, 라이선스료 등의 형태의 저작권 사용에 대한 지출 또는 수입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문제 4로 이동)

문3-1. 평균적으로, 귀사가 지출하는 저작권 관련 로열티, 라이선스료는 총 지출액의 몇 % 정도입니까?

() %

문3-2. 귀사의 매출액의 몇% 정도가 저작권 또는 창조활동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문4. 귀사의 사업활동에서 창조활동을 수행하는 종업원은 전체 종업원의 몇% 정도입니까?

() %

※ 창조활동: 예를 들어 보석에 대해 디자인을 하는 보석 숙련공과 같이 저작권을 창출하거나 개발하는 활동

◆ 지금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025년 저작권통계
품질개선 컨설팅 최종결과보고서

발 행 일 2025년 11월
발 행 인 국가데이터처장 안형준
발 행 처 국가데이터처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안 내

1. 이 보고서는 국가데이터처에서 수행한 국가통계 품질개선 컨설팅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로 보고서의 내용을 발표 또는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올바른 인용 및 출처 표시 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이 보고서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국가데이터처에 있습니다.